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MAY 1 8 1982
130 St. George Street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26 1982년 5월18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May 18,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아일랜더즈 스탠리컵 3년 연속차지

◆뱅쿠버 캐넉스를 3 : 1로 완파, 스탠리컵을 차지한 아일랜더즈의 고드·레인이 컵을 높이 쳐들어 환호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에)

정비사 대책 모색

한인회 주도에 단체장들 호응

직장알선 · 생활도구 모으기로

일자리가 없어 애를 먹고 있는 항공정비사들(※한국일보 12일자)에게 온정의 손길이 뻗고있다.

토론토지구한인회는 17일밤 차선겸 실업인협회장, 김병진 벡커협회장, 장순채 코리아타운번영회장, 홍중표 토론토경찰국 시민불평위원회 위원과 정비사 대표 2명을 시내 아리랑식당으로 초치, 대책을 논의한 결과 우선 이민온 정비사들의 명단, 가족상황, 취업희망분야, 영어구사능력 정도를 파악한 후 참석 단체장들의 협조로 취업 또는 생계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정비사들은 이미 명단을 작성했고 또한 취업 알선 제의가 있을 때 누구를 먼저 보내느냐하는 순위도 결정, 자동차수리업종, 상점헬퍼등 취업제의가 있을 때 곧 응할 수 있다.

이들은 연락대표자로 이종학(전화 752-0017, 829 Birchmount Rd., #208, Scarboro.), 부대표자로 강갑철(전화 757-2589, 829 Birchmount Rd., #607, Scarboro.)씨를 선정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이민초기 어려웠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항공정비업이 아니더라도 아무일이건 할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1)항공정비업계에 취업한다는 것은 당분간 포기하라, 2)직장이 없다고 캐나다정부를 나무라지 말라, 3)부부가 일할 각오를 가져라, 4)단체를 만들어 결속된 힘을 보이라는 것등을 충고했다.

항공정비사로서 10여년 경력을 가진 이들은 작년 12월부터 이곳 도착후 항공사를 돌며 취직문을 두드렸으나 "있는 사람도 임시해고했다.", "캐나다 경험이 없다.", "면허가 없다"는 등 이유로 취업이 거부됐다. 정비사들은 "면허 시험을 보려해도 캐나다경험 3년 이상의 조건때문에 시험자격도 안주더라"고 분개했다.

대부분 대한항공(KAL)소속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렸던 이들 40여세대(토론토지역)는 이민을 허가해 준 캐나다 정부를 원망, 이민국이나 맨파우어·센터에 찾아가 항의 소동을 벌인 일도 있다.

이들중 약10세대는 영어를 배우며 정부로부터 1주당 120달러(독신자는 70달러)를 보조받으나 아파트세가 비싸 적자생활이다. 약15세대는 지렁이잡이를 시작했고 약간명은 상점헬퍼로 나간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인순한인회장은 "여러 단체들이 협조해 준다면 이들을 위한 전담직원 1명을 고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교민사회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한인회는 이에 앞서 정비사들과 접촉해온 신영식총무의 제의로 긴급간부회의를 소집, 다음 사항을 결의했었다.

1)정비사들을 돕는 운동을 범교민적으로 벌인다, 2)식기, 가구등 생활기구들을 모아 전달한다, 3)현금기증을 받는다, 4)교민들로부터 취업알선 전화를 받아 전달한다, 5)광고가 필요하면 한인회부담으로 낸다는 등이다.

한인회는 교민들이 침대, 의자, 장난감, 자전거등 여분이 있는 물건을 한인회관(20 Mobile Dr.)으로 직접 갖다주거나 또는 전화연락(755-9288)해 주기를 요망했다.

"피해최소화 노력하라"

전대통령, 장여인사건 언급

(서울본사전화)전두환대통령은 14일 거액어음부도사건에 관해 『전체 국무위원들은 사후수습에 있어 소신을 갖고 경제에 미치는 피해와 일반국민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내각에 당부했다.

전대통령은 이날 하오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하고 제5공화국정부아래서 부정과 부패는 반드시 척결돼야 하며 이 목표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현정부가 갖고 있는 확고부동한 방향을 되풀이 강조했다고 이웅희청와대대변인이 밝혔다.

전대통령은 또 『불미로운 사건에 저촉되는 사람은 대통령을 포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해 엄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여인 전남편 구속

승려들도 수사대상

(서울본사전화)대검중앙수사부는 14일 장영자씨의 첫남편 김수철씨(53·대아금속사장)를 사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장씨부부의 은닉재산수사를 위해 평소 장씨와 접촉이 잦았던 승려들의 명단을 파악 이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펴기로 했다.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 은, 주식, Bonds, RRSP에 대한 문의는
361-3428(B), 447-1374(R) : 강 상 욱
RRSP를 왜 남에게 관리시키는가? 자기돈은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기존 RRSP를 자기관리 RRSP로 옮기는데는 비용은 전혀 들지않으며, 유지관리비로 1년에 $100만내면 된다. 자기가 관리하면 투자선정은 자기가 원하는대로 할 수 있는 장점이있다.

"캐나다경제 내년에나 회복"

최승락외환은행장, 무역세미나서 논평

"세계 경제침체의 바닥이 보였다"는 최승낙은행장의 예언대로라면 내년부터 캐나다경제는 회복될 전망이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면서 60년대및 70년대 20년간 연평균 9%의 성장을 보였던 한국경제는 80년에 5.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후퇴했으나 81년부터 서서히 회복, 4차경제개발5개년계획 제1차년도인 '82년도의 목표는 7%의 성장이다. 그러나 지난 3월까지 ¼분기의 성장은 1.4%에 불과, 금년목표가 달성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성장요인의 45%를 차지하는 수출도 어려운상태에 빠졌다고 오타와 한국대사관의 신동오상무관은 말했다.

13일밤 토론토시내 무역회관에서 개최된 무역협회(회장: 이영현)주최의 무역세미나에는 교포무역인들과 삼성전자, 국제상사등 한국상사주재원등 60여명이 모였다. 토론토무역관의 이준식관장, 이상훈토론토총영사등도 참석한 이 세미나에서 연사들은 한국과 캐나다경제의 문제성을 분석하고 전망을 발표했다.

첫 연사로 나온 오타와대사관의 신 상무관은 한국경제회복의 열쇠는 수출신장에 달려있으나 세계적인 불황으로 4월말까지 불과 5.3%만 증가, 교포무역인들의 협조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신 상무관은 "국제원유값 하락으로 연간 60억달러의 원유수입 부담이 줄어 외환보유고에 숨통을 틔게됐고 80년에 30~40%까지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이 금년에는 10%이내에 고정될 것 같다"고 낙관론도 폈다.

그는 "그러나 최근 이철희·장영자부부의 사채놀음에 흔들릴 정도인 한국기업의 재무구조가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두번째로 등단한 최승락 외환은행장은 "미국경제가 금년내에 회복함에 따라 캐나다경제는 내년부터 회복될것이나 회복의 속도는 년평균 1~2%의 성장으로 매우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나다경제의 문제는 고물가, 고실업, 고금리, 환률의 불안정, 저성장의 5가지가 서로 얽힌것"이라고 지적한 최행장은 캐나다의 근본적 문제는 경제성장에 앞서 소득의 재분배부터 고려한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 1차산업인 원자재를 수출하고 2차산업제품은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 연사인 교포무역인 김병주 사장은 "무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것이다"면서 무역용어등을 설명했다.

토론토에서 킴벌수입상사를 경영하는 김씨는 대부분의 교민들이 "무역은 전문종사자들의 전유물인줄 아나 사실은 누구나 돈 한푼 안들이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역의 근본은 생산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인의 역할이라고 말한 김씨는 은행을 이용, 신용만으로 무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3일밤 무역세미나에 모인 교포무역인들과 연사들. (원내) 좌로부터 신동오 오타와대사관 상무관, 최승락 외환은행장, 무역인 김병주씨.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랙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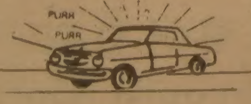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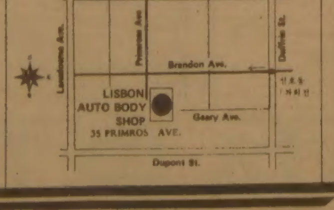
제2회 재캐나다
한인친선탁구대회
시 상 : 1982년6월5일(토) 오전10시
장 소 : 994 CARLAW AVE. (WEST WOOD JR. HIGH SCHOOL) CARLAW AVE & EST WOOD
경기종목 및 참가비 :
단체전 (4단1복) $30.00
남·녀개인전 $5.00
개인복식 $7.00
시 상 : 단체전 : 우승, 준우승
개인남·녀 : 1.2.3등
개인복식 : 우승, 준우승
연락처 : 송광호 (533-2361)
김동천 (243-0522)
주최 : 재캐나다 탁구협회
후원 : 재캐나다대한체육회, 미도파백화점, 브랜든스포츠, 거북이선물센타, 빅·세븐선물센타, 한국관, 동양식품 연합상사

LISBON AUTO
COLLISION INC.
⊙A급 BODY MAN
⊙A급 페인터.
⊙수리중 차대여
⊙사고후 보험처리—책임보증.
⊙TOWING 써비스
⊙철저한 신용

고치고 다듬고



때빼고 광내고
※완전 BODY WORK !
주소 : 35 PRIMROSE AVE. TOR.
전화 : (B)533-8507, 8508
(R)439 6548, 266-8925
이영두, 이건학 형제



종합보험

김 홍 랑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주택, 상점보험
●사업보험
●R. R. S. P.
●INCOME AVERAGING ANNUITY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961-3774(B)
277-8733(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생활안정금고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02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파죽지세의 아일랜더즈 NHL우승

캐넉스 선전했으나, 역부족 3: 1물러나

(뱅쿠버)뱅쿠버응원단이 흔드는 1만5천장의 하얀 수건은 항복의 백기로 변해 버렸다.

NHL하키 최고의 선수, 풍부한 인원등으로 최고의 콘디션에 오른 뉴욕·아일랜더즈는 뱅쿠버·캐넉스를 16일밤의 4차전에서 3:1로 누르고 4연승, 3년 연속 스탠리컵을 차지했다.

뉴욕·아일랜더즈의 우승은 미국에 본거지를 둔 팀으로서는 NHL사상 최초의 3연패이다.

16일의 최종 4차전에서 2골을 기록한 아일랜더즈의 마이크·보시는 스포츠 기자들이 뽑은 NHL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MUP)로 선정됐다.

보시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16일의 2골을 포함, 17골을 기록하여 작년의 자기기록과 타이를 이루었다.

3연패를 당하고 막바지에 몰린 캐넉스는 2피리어드까지 3:1로 리드당했다.

마지막 3피리어드에서 스타 토마스·그라딘이 이끄는 캐넉스의 공격진은 최선을 다했으나 골리 빌리·스미스가 이끄는 아일랜더즈의 수비를 뚫지 못하고 우승의 영광을 뉴욕으로 돌려야 했다.

캐넉스의 코치 로저·닐슨이 창안한 백기의 상징 하얀 수건을 흔들어대던 뱅쿠버 응원단은 그대로 앉은채 백기를 들고 말았다.

아일랜더즈의 우승으로 끝난 81·82년도 NHL은 이변의 연속이었다.

에드먼톤의 부상은 예상됐으나 정말 21개팀중 리그전 총합 2위까지는 예상을 못했었고, 또 그레츠키의 오일러스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L.A킹에게 떨어져 나간 것은 이변중의 이변.

물론 아일랜더즈의 우승은 누구나 예상했으나 플레이·오프 초반에는 고전, 약체 피츠버그를 간신히 연장전 끝에 물리치고 준준결승에 올랐었다.

그러나 뱅쿠버의 준우승은 뱅쿠버 시민들도 예상못한 뜻밖의 수확이다.

81·82의 정규시즌에 승률 5할도 못기록한 캐넉스는 이 기록때문에 플레이오프 내내 적지로 가서 싸워야 했다.(승률이 높은 팀이 1,2차전 홈게임을 가진다)

캘가리, L.A., 시카고등 더 우세하리라고 예상되던 팀들을 파죽지세로 물리치고 결승에 오른 캐넉스의 패인은, 캐넉스의 잘못보다 아일랜더즈의 콘디션 회복에서 찾을 수 있다.

1차전 홈게임에서 아일랜더즈는 저돌적인 캐넉스에 말려들어 파울을 연속범하면서 연장전끝에 캐넉스의 수비 스네브스트의 패스미스를 마이크·보시가 가로채 간신히 6:5로 승리할 수 있었다.

게임후 캐넉스의 스타 그라딘(플레이오프 개인성적 4위: 19점)은"첫게임을 놓친 것이 억울하다. 아일랜더즈는 1,2차 게임에 홈경기를 치른 뒤 시즌 최고의 콘디션을 회복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16일밤 아일랜더즈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하키시즌은 작년 10월초에 시작, 장장 8개월을 끌었다.

토론토·메이플립스는 10년만에 아예 플레이·오프에서 탈락, 이미 4월초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갔었다.

연방하원 사과요구거부

구타여성문제에 폭소

(오타와) 연방하원은 13일 한 여성의원이 의회 토의중 "남편에 구타당하는 여성주부" 들에 관한 발언을 하자 대부분의 남성의원들이 1분간 폭소를 터트린 데 대해 정식사과 하기를 거부했다.

지난 12일 구타여성 문제를 의회에서 꺼낸 마가렛·밋첼 신민당위원은 사과를 거부한 의원들의 처사도 여성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분격했다.

미첼의원은 이난 캐나다 전체 인구의 52%가 신체적으로 구타 상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선량들이 국민을 대표 하도록 뽑힌 의원들이 그같은 의제를 꺼내자 폭소를 터트렸다는 것은 끔직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루시·페틴 여성지위에 관한 자문위원회 회장과 쥬디·에롤라 여성지위 담당장관도 분노를 표시했다.

씨알여름 캠프 선착순 60명

8월24일부터 27일까지 보이스카웃 캠프장에서 열릴 씨알여름캠프의 참가신청이 시작됐다.

2학년 이상 학생 60명을 등록선착순으로 맞을 씨알여름캠프의 비용은 학생당 $45.

신청은 6월20일께 신청서와 수표를 접수시키면 된다. 연락은 441-2986

<독자의소리>

내가 더 예쁘니?

정영자

◆편집자주 : 다음 글은 미스·코리아 선에 선발된 윤혜련양이 모 교민지에 투고한 글을 읽은 한 교민의 투고이다.

"선"에 당선된 윤양의 글(민중신문 "독자의 소리")을 읽고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벌써부터 한인사회의 처사를 논할 수가 있느냐에, 특히나 아름다움과 너무나 거리가 먼 마음가짐이기에 독자로서 한마디 두서없이 썼다.

모든 행사에는 참여에 깊은 뜻이 있다고 본다. 누구나 내가 "꼭 이기리라"하는 야심은 똑같다. 하지만 승패의 결정은 심사석에 맡겨야 된다는 것쯤은 다같이 인정하는 것인데도 구차한 자기변명으로 떳떳한 자기 양심을 괴롭히는 것이다.

어쩌면 내가 "1등"했을 것인데, 심사에 잘못이라도 있는 듯, 마구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국민교 5년때 고국을 떠나왔다는 Y양의 문장은 한마디로 못믿겠다는 그런 뜻인것 같은데 내용을 되새겨 본다면 옷들, 아랫물 따져가면서, 떳떳하다고 존경받을 수 있어야… 미인대회를 마치고 큰 충격을 받았다…등 읽은이들로 하여금 마음을 구슬프게 하고 있다.

왜 우리는 서로가 [illegible]구치는 의심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선"에 당선된 Y양은 옛날말을 인용하여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사람이 번다」고 했는데, 말의 뜻이 이해가 안간다.

누가 과연 고운 마음씨의 미인자격이 있겠는지?

내가 만일 등수 안에 못들었더라도 땀 흘리신 여러 어른들께 고마움을 표현할줄 아는 정직하고 착한 마음 가진 아가씨들만의 미인대회 행사가 되어지기 바란다.

매사에 말들만 만들면 온 힘을 들여 자신의 희생을 마다않고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무거운 짐은 누구가 덜어줄 수 있을까?

부모가 자주 찾아가는 집 자녀가 공부는 못해도 상받는다고 엉뚱하게도 선생을 모욕하듯이, 이제부터라도 한인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에는 참여하려고 마음을 가다듬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크고 작은 한인단체를 내 가정같이 아끼면서 매일의 새 아침을 맞이하며 잘 익은 벼의 고개 숙인 모습의 아름다움을 꽉꽉 간직하자고 크게 크게 외치고 싶어서….

◆플레이오프에서 17골을 기록하고 최종전에서도 2골을 기록 결정적 수훈을 한 아일랜더스의 날쌘돌이 마이크·보시가 캐넉스의 골리 부르도를 껴안고 있다.

◆잠시 일손을 멈추고 뉴욕에서 전시될 작품들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장연탁씨. (10일 삼우스튜디오에서)

"육중한 돌로 깎는 나르는 새의 자유"

"육중하고 투박한 돌과 대화하고 있노라면 내 자신이 미지의 세계로 여행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고, 자신의 내부가 새로와지고, 충만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는 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뉴욕의 웨스트·브로드웨이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질 토론토의 조각가 장연탁씨(42)의 말이다.

지금까지 토론토와 이태리에서 전시회를 가진 장씨의 이번 작품전은 파리와 더불어 세계예술의 "메카"인 뉴욕화단에의 데뷰전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도약이다.

10일 작품의 산실, 삼우스튜디오(56 Wade Ave.)에서 만난 장연탁씨는 "이번 뉴욕전은 기대보다 쉽게 이루어진 것이라, 많은 작품을 준비 못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것과 합쳐 20여점을 출품합니다."

서울미대 조각과를 64년에 졸업, 68년 이민한뒤 79년부터 온태리오 칼리지·오브·아트(OCA)에서 공부한 2년중 1년간을 이탈리아에 유학하면서 「돌」과 만났다. 장씨는 그전에는 점토, 석고, 시멘트, 철물용접등 다양한 소재를 썼으나 당분간은 「돌」에 집착하려한다. 「돌」은 흙으로 빚어졌다는 인간이 접한 가장 원천적인 자연재료의 하나.

돌이 주는 무한한 가능성과 상상력은 "재료중에는 다루기가 가장 어렵다"는 고충도 뛰어넘게 한다. 대리석만 하더라도 파운드당 $1이나 하는 비싼 재료이지만 지금까지는 80년 이탈리아에서 가지고 온 재료로 작품에 충당하고 있다.

원석을 에어·해머로 깎은 다음, 조금씩 깎아가는 것이 작품의 과정. 넓고(약 1500 Sq.피트) 높은 스튜디오에서 하루종일 돌과 씨름할 수 있는 행운(?)은 무엇보다도 부인 조재숙씨(35)의 공이다.

"그 친구(부인)의 이해력과 생활력·희생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가족들에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이 생활 때문에 창작이 눌리는 예술인, 특히 이민예술인들의 가장 큰 고충인 생활부담을 덜어준 그의 부인은 현재 Bakery Shop을 경영하고 있다.

81년도에 차린 스튜디오는 주로 장씨의 작품 산실로 쓰이고, 가끔씩 분위기가 좋아 사용을 원하는 교민단체들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월 $600이나 되는 렌트등 유지비를 위해 학생들을 지도해 보라는 충고도 받지만 아직도 시간을 그런데 뺏기고 싶지 않다. 다만 이번 뉴욕전이 끝나면 다른 미술가들과 함께 주 1~2회쯤 교민을 대상으로 한 <Drawing Show>를 해볼까고 장씨는 생각한다.

"다른 이민자들처럼 이민직후엔 4년간을 인쇄기능공으로 일하는등 지난 십년간은 거의 작품을 못하는 공백기를 감수했어요.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가장 저주받은 계급이 예술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고통이 많긴 하지만 Challenge(도전)을 운명처럼 생각하며 그냥 예술에 정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읍니다."

좋아하는 조각가 로는 현대 조각계의 혁신자인 루마니아인 브랑·꾸지(Bran Cusi)를 들 수 있고, 장씨 자신은 실험적이기보다 보수적인 경향, 나르는 새, 춤추는 여자, 흐르는 구름, 떨어지는 물등을 표현하기를 즐긴다.

가족으로는 최근 토론토 한인회로부터 장한 어머니상을 탄 어머니와, 1남1녀가 있다.

(조미래 기자)

토론토·한국일보
이민의 문화적·사회적 자아(Identity)를 밝혀 가는 신문.

캐나다 한국외환 은행불루어지점개점안내

그동안 교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착실한 발전을 거듭하여온 저희 캐나다한국외환은행은 한국인 타운인 불루어 Street에 지점설치 준비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개점하게 되었읍니다.

이제 저희 은행은 본점과 불루어지점 양 점포에서 여러분을 더욱 성심껏 모시게 되었읍니다. 배전의애용있으시기 바랍니다. 불루어지점에서는 토요일에도 문을 열어 여러분을 모십니다.

— 아 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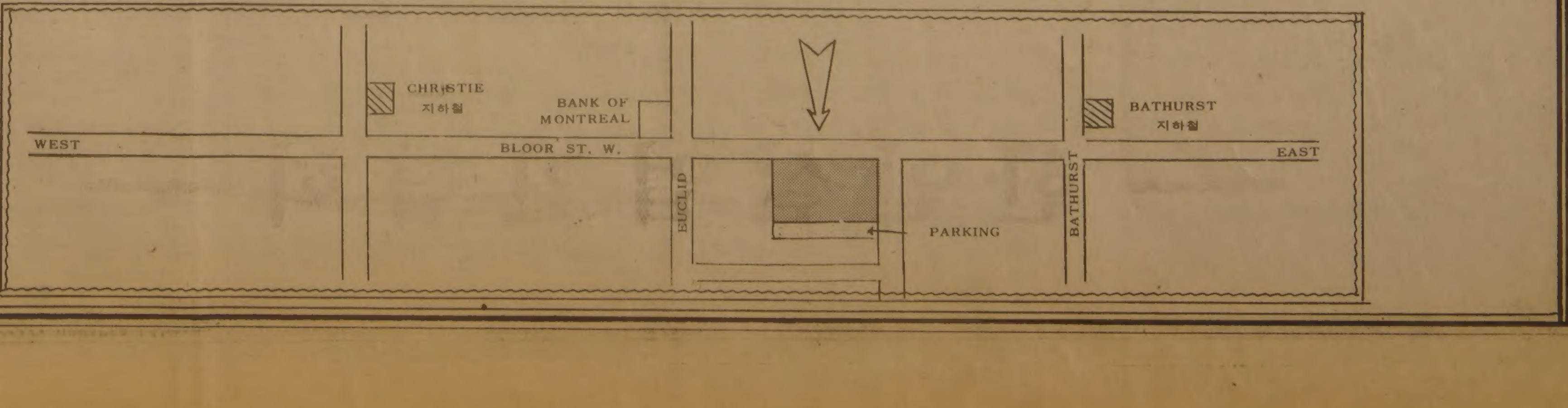
영업개시일자 : 1982년 5월31일(09 : 00)

개 점 식 : 1982년 6월8일(11 : 30)

개점Reception : 1982년 6월8일(18 : 00~20 : 00)

불루어지점 주소 : 627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M6G 1K8 ☎ 533-8593



"재미교포 성장 빨라"

NYT 특집, 한국인등 아시아계 활약보도
정명훈, 백남준, 월라킴, 캐시하드위크등 언급

뉴욕타임즈지는 9일자 일요판 매거진에서 『현재 미국사회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소수민족 그룹』인 아시아인들의 실태를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Robert Lindsey 뉴욕타임즈 LA지국장이 쓴 장장 12페이지의 이 특집기사는 아시아인들의 이민사에서부터 현재 각계각층에서 성공한 아시아인들의 활약상, 그리고 이들이 미국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The New Asian Immigrants (새로운 아시아 이민들)』제하의 동기사를 이하 요약 소개한다.

과학연구에서 우리가 듣는 음악에 까지,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입는 옷, 살고 있는 주택에 이르기까지 이나라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소수민족 그룹인 아시아인들이 미국문화에 대해 미치고 있는 영향은 실로 대단하다.

맨하탄 웨스트사이드 북쪽 브로드웨이를 따라 올라가면 수년간 사람들이 드나들던 청과상 카운터에는 이태리인 대신에 한국인이 서있는 것이 보인다.

웨체스터 카운티 하츠데일 기차정거장에는 아침 7시56분차로 출근을 가다리는 사람들중 반수가 뉴욕시에 직장을 가진 일본인이다.

1980년도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인은 지난 7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에트닉그룹으로서 이제는 3백50만 이상을 헤아리고 있다.

한국인, 필리핀인, 중국인, 태국인, 일본인, 월남인, 베트남인, 캄보디아인등이 지난 1970년대이래 더 나은 삶, 새로운 기회를 찾아 태평양을 건넜다.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이민제한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이것은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른다.

점증하고 있는 아시아인들의 합법및 불법 이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구에 대한 이들의 비율은 아직 약1.6%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은 이미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점점 많은 미국의 관현악단에 한국및 중국인 연주자들이 늘어가고 있고, 많은 아시아의 예술인들은 서구스타일을 포용하려 드는 가운데서도 이들은 알게모르게 서구적문화유산에 새로운 향기를 불어넣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정치적피난민에게는 문호를 개방해 왔지만 오늘날 미국에 유입되는 난민들은 단순히 더 나은 생활을 찾아 온다는데서 문제가 있다.

같은 이민이라도 서울의 재산을 처분하고 비행기 1등석에 앉아 LA로 날라와 30만달러짜리 집을 사고 50만달러짜리 리쿼스토아를 사는 서울의 실업인과 제나라말도 모르는 라오스 원시산림족인 몽족 이민하고는 공통점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을 여행하면서 아시아인들을 만나고 직장과 집을 방문해보면 금방 느끼게되는 것은 이들은 바로 일에 대한 추진력과 야망의 덩어리라는 것이며, 이것은 미국인의 생활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같다는 것이다.

보스톤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세이지오자와, 중국의 첼리스트 요요 마, 한국에서 자란 정명훈은 모두 줄리아드에서 공부했으며 모두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지휘자요, 피아니스트가 된것이다. 아시아인들은 이미 미국의 고전음악계에서 주요한 요소가 되버렸다.

뉴욕시에만 약 1천5백명 이상의 아시아인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라까와나 유시오 시노하라같은 화가, 이사무 노구찌같은 조각가, 백남준같은 비데오아트 파이어니어는 비평가에 의해 모두 미국내 최고봉수준으로 꼽힌다.

I.M.Pei와 미노주 야마사끼는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건축가이다.

LA 코리아타운의 가난한 한국가정에서 자라난 월라·킴은 지난해 『소피스티케이티드 레이디스』의 의상디자인으로 토니상을 받았으며, 또다른 한국인인 캐시 하드위크는 오늘날 맨하탄 7번가에서 여성스포츠웨어의 주요디자이너로 꼽힌다.

Wang Laboratories의 창립자 중국인인 왕박사, 베니하라 레스트랑 체인주인인 히로아끼(록키)아오끼, RCA부사장이었던 중국계 밍 수여인, MIT의 사뮤엘C.C.팅박사(1976노벨물리학상 수상)등은 모두 유명한 인물들이다.

팅박사는 노벨상수상연설을 중국어로 한다음에 영어로 해서 주목을 끌었는데 본인말로는 『재미로 했다』지만 자기의 민족적 백그라운드를 과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아시아인들의 학구열 또한 대단하다.

웨스팅하우스과학재능경연에 나온 40명의 화이날리스트 가운데 6명이 동양인 이었다.

UC Berkeley 학부재학생 가운데 20%가 동양인이다. LA의 동양인인구비율은 5.3%다.

뉴욕의 명문 스타이브슨트고교는 작년에 신입생 7백50명을 뽑는데 1만명이 응시했다. 이학교 교장은 이들중 20%가 동양인이라고 밝혔다. 사정은 명문 브롱스사이언스고교도 마찬가지다.

아시아인들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인종차별과 착취를 당해왔다. 지난 1백50년간 미국에 온 동양인들은 『차라리 미국에 오지 말았을 것을』하고 후회했는지도 모른다.

『황리 페이버』가 저임노동을 뜻하게 되었고, 『Yellow Peril』여론에 휩싸이기도 했고, 이차대전때에는 서부에 살던 일본이들이 포로수용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어떤 이민자들은 자기네 나라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자주 먹었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것이 보도돼 이웃집에서 개나 고양이가 없어질때마다 의혹을 받기도 했다.

『중국, 한국, 일본문화가 모두 다른데 일본이 현재까지는 가장 크게 미국에 영향을 미쳤다』고 남가주대학의 패트리샤버거박사는 말한다.

캘리포니아주정부의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인 중국계 March Fong Eu 여사는 아시아인들은 모두 다른 문화에서 왔지만 한데 결속해서 정치에 파고 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시아인들이 정치외곽에 앉아있으면 그들은 자기들 나라에서 당한 것과 똑같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뉴욕지사발〉

어린이 춘화도 판매망 검거

캐나다, 유럽등의 국제판매조직

(LA지사)미국의 어린이 춘화도 판매지장의 80%에 외설자료를 공급하던 LA의 한 여인이지난 5일 경찰당국에 체포됐다.

이날 체포된 캐시·윌슨(43세)여인은 3명의 부양어린이를가진 웰페어수혜자임이밝혀졌다.

윌슨여인은 연방정부로부터 웰페어보조금을 받는한편 지난 11년간 어린이 춘화도 판매망을 구축, 연간 52만5천달러의 외설 비즈니스를 운영해왔었다.

경찰당국과 우편당국수사관들은 어린이춘화잡지 『키디』와 다른 외설물들의 최대판매보급망을 6개월간 조사한뒤 지난5일 윌슨여인을 체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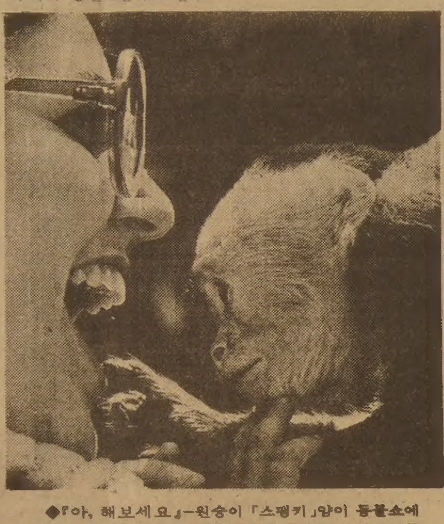
수사당국은 또한 외설물을 배포한 혐의로 공범 리처드·트룰리오(42세)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윌슨여인은 많은 부동산과 롤스·로이스, 머시디스·벤즈등 고급승용차 4대를 소유하고있음이 수사결과 밝혀졌다.

경찰당국은 수백개의 8미리미터 춘화필름과 잡지를 압수했다. 이중 70개의 춘화필름은 6세부터 12세사이의 어린이들이 다른 어린이들이나 혹은 성인들과 성행위를 하는 필름이었다.

경찰당국은 캐나다, 덴마크, 영국등 외국의 외설물 구독자 명단 3만개도 압수했다.

윌슨여인은 미국뿐 아니라 외국도 포함한 국제적 외설물판매망을 구축했다.



◆『아, 해보세요』-원숭이 「스펭키」양이 동물쇼에 참가중 샌디·버드양의 입을 벌리게하고 충치검사를 하고있다. 「스펭키」양과 다른 동물들은 매직마운틴후원으로 베이커스필드의 한 학교에서 쇼를 하고있는 중이다. 〈베이커스필드- 〉

82·83 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제해설 2

$5천 주택융자금 $2만여효과

공인회계사 현영일

중소기업세 2년간 면제

이번 회사세법 개정은 온타리오주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연방세법 제125조 1항(캐나다 중소기업체)에 해당이 되는 회사는 오늘부터 2년간 주정부에 내는 세금이 완전히 면제된다.(연방세는 종전과 같다.)

이에 따르는 세무계획의 필요성과 특히 회사소유자겸 경영자에게는 봉급과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전략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느끼게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기업체와 주주(소유자)가 세금을 2년동안 거의 극소수 또는 전혀 안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다 본다. 제한조건은 지난11월12일 연방정부예산에 규정된 세법에 의한 년수입과 누계수입금이 20만달러, 100만달러가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Tax Holiday(면세)가 가능하다.

연방예산안과의 비교

감가상각비(Capital Cost Allowance)와 잠재소득(Reserve)에 대한 세금규정은 종전과 변함없다.

OHIP 인상

얼마전에 있었던 온타리오 의사들은 일반노조와 같이 적극적 치료비인상 투쟁을 벌여 정부와 의사협회는 인상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강보험료가 다음과 같이 인상됐다.

OHIP의 인상은 1982년10월1일부터 효과를 발생하나 항상 3개월 이전에 납부하여야 함으로 실제적 인상은 1982년7월1일이 된다.

개인당 : $23에서 $27로 $4인상.

가족당 : $46에서 $54로 $8인상.

벌금또는 사회보장혜택 수혜자는 계속 무료로 가고 있으며 영세수입자나 가족에 대한 보조액도 동시에 변경됐다.

자동차수리등 인건비에도 과세

1982년6월14일부터 개인유형자산에 써비스를 제공한 인건비(설치, 수리정비등)에 판매세를 물게된다.

옷을 고치거나 계약에 의해 컴퓨터를 정기적으로 정비, 또는 자동차·인쇄기계등에 제공하는 고체의 인건비에 대한 판매에 7%가 과세된다. 수리할 것이 있으면 앞으로 한달이내에 고치면 판매에 7%를 절약할 수 있다.

수리업이나 장비설치없이 종사하는 기술자는 누구나 해당 관청에 등록,허가증을 가져야 한다. 판매허가가 없으신분은 지역담당 소매판매세 세무소에서 신청해면 쉽게 얻을 수가 있다.

예외 : 부동산수리인건비, 판매세에 해당안되는 품목에 대한 인건비, 재 판매를 위한 인건비등은 세금공과에서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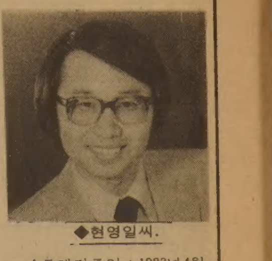
무주택자 융자 10년간 무이자

주택담보융자는 앞으로 10년동안 이자없이 무주택자에게 5천달러까지 융자, 침체된 건축업을 촉진시키며 또 실업자수를 줄임과 동시에 서민층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계획안에는 7,500만달러를 책정, 약 15,000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액 : 주택값의 10%또는 최고 $5,000.

▲주택구입 또는 구입기간 : 1982년5월14일~1982년10월30일까지 (당일 포함). 앞으로 5개월 반동안 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영일씨.

▲주택거주일 : 1983년4월30일까지

▲무이자 융자기간 : 주택구입날짜로 부터 10년간

▲상납방법 : 구입한 날로부터 10년후 첫 달부터 5년동안 매월 같은 금액 지불.

▲응모자 자격 : (1)18세이상으로 캐나다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자로서 (2)지난 1년동안 온타리오에 거주한 자. (3)과거 1년동안 집세를 든 자로서 다른 거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자.

▲주택조건 : (1)과거에 아무도 거주한적이 없는 반드시 신규 주택이여야함. (2)구입한 후 응모자가 거주하여야 함. (3)오직 단독주택(Condominium)이어야 함.

▲주택가격 : 주택값이 적어도 2만달러를 초과하고 현금지불(Down Payment)이 주택값의 최저 10%이상 하여야 함.

▲주택가격의 제한 : 토론토·필(Peel)지역 York지역(Town of Georgina제외), Oakville, Pickering, Ajax지역은 최고 $115,000까지

▲응모처 : ONTARIO MORTGAGE CORP.

이 혜택은 무주택 서민층에게 꼭 권하고싶은 것으로 이자만 적어도 $20,000이상 절약을 할 수 있다.

만일 $5,000을 융자받았을 경우 현 이자율을 18%고 잡고, 10년동안 은행넘어서 복리로 계산하면 이자만 $21,169이 되는데 그많큼 절약하게 된다.

축

일간지 발행 1주년기념

교민의 벗 · 길잡이

생동하는 뉴스 · 계몽기사

한인사회 대동맥,

앞서가는 한국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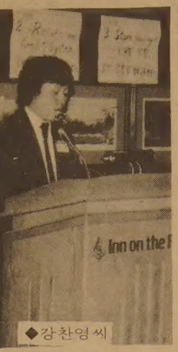
~~~ 한인실업인협회 ~~~
~~~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실협교육강좌 시리즈 II

Store Lease시 유의할 사항

—강찬영 고문변호사편—



◆강찬영씨

지난 4월11일로 변호사가 된지 만1년이 되는 강찬영 고문변호사는 협회의 고문변호사로 선정해 주고, 또 이러한 귀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해준 것에 감사한다며,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Lease의 양식에는

1. Commercial Lease
2. House Store Lease
3. Commercial Plaza Lease

의 3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Commercial Lease(약 6페이지)와 House & Store Lease(약 3페이지)의 두가지는 미리 인쇄된 가장 보편적인 Lease의 양식으로서 Lease의 내용에 따라서 추가삽입, 또는 삭제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세번째의 Commercial Plaza Lease는 큰 Shopping Centre에 들어갈 때에 작성되는 Lease로서 조그만 독립된 가게에 들어갈 때에 작성되는 상기 2개의 Lease와 달리 Shopping Plaza 자체에서 작성한 여러가지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이 Lease 체결시는 먼저 Offer to Lease라고 하는 진짜 Lease의 내용을 요약한 것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주인측에 유리하게 작성된 조항이 많으므로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 자세한 상의를 하여 차후에 착오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그 내용에는 tenant에게 불리한 많은 조건이 들어있으므로 가능한한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되, 불리한 조건을 다 없앨 수는 없고, 번연히 알면서도 그 장소를 얻기 위해 부득이 받아들여야 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다음 구체적으로 Lease 체결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하기로 한다.

첫째, Premises(장소)인데, 이것은 주소, 넓이, 지하실이나 이층의 포함 여부등을 말한다. 서류상의 넓이와 실제 넓이가 차이가 나는 예도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전에 조사해 보는 것이 좋다.

2층과 지하실의 포함 여부의 확인은 수리의 책임한계 관계로 매우 중요하다. 수리에 있어서는 대체로 자연마모, 화재, 구조상의 이상으로 인한 것은 Landlord가 책임지지만 그외의 것은 대부분이 tenant가 책임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2층과 지하실에 대한 것을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대개 2층까지 포함해서 Lease할 때에는 살림집으로 쓰는 것이 상례인데, 이런 때의 2층은 Business가 아니고, 거주지에 해당하므로 Landlord & Tenant Act의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즉 Commercial Lease로서 가게와 2층이 함께 되어 있을 때에 예를 들면, 집세를 주인 일방적으로 100% 인상한다는 것등은 법으로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꼭 변호사와 의논을 해야 한다.

다음 임대료(rent)에는 대개 네가지가 있다.

1. Minimum Rent—이것은 Commercial Plaza Lease에 있고, 보통 단순한 Commercial Lease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Percentage Rent—이것은 Minimum Rent에다가 매상에 따라서 더 지불하는 임대료이다. 즉 연에 $12,000(Min. Rent) 임대료인 경우 매상의 6%(예)가 $12,000이 넘을 때에는 그 차액을 더 지불해야 하는 조건이다. 대개 이 percentage rent는 6~8%가 상례로 되어 있다.

Landlord가 정확히 이 차액을 징수하기 위해 Lease상에 매상에 대한 기록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것은 속이는 경우에는 Landlord가 감사를 할 수 있고, 감사결과 부정이 발견되면 소요비용과 차액과 벌금을 추징하게 되어있다.

3. Additional Rent—이것은 위의 두가지 임대료 외에 재산세, 유지비(경호비, 사무비, 보험료등)등을 전체 Plaza에 대한 가게 크기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 Plaza의 비용이 $1,000인데 가게의 크기가 100분의 1이라면 $10.—을 additional rent로 내는 것이다.

4. Net Basis—이것은 보통 Commercial Lease에 적용되는데, Landlord가 가게유지비, 재산세등을 tenant에게 부담케 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음에는 Assignment Clause인데, 이것은 가게를 양도할 때에 들어가는 귀절로서 중요하다.

Commercial Lease와 house & Store Lease에서 Landlord가 새 tenant를 부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는 귀절을 보게 된다. 이것은 거절할 수 없다로 바꾸어야 한다.

새 사람이 동일종류의 사업, 더 위험성이 없는 사업, 경제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등이 구비되어 있을때에는 이를 거절할 수 없게하는 것이다.

따라서 Landlord는 새 사람의 과거 사업경험이나 은행거래 현황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세번째의 Commercial Plaza Lease에 조그만 글씨로 양도시에, Landlord가 30일 이내에 허락을 하든가, 아니면 Lease를 무효화하고, 가게를 비워달라고 할 수 있다는 귀절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양도시 Minimum Rent와 Percentage Rent의 평균을 Minimum Rent로 한다는 불리한 귀절을 넣는 수가 있으므로 이것도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House & Store Lease에 Destruction Clause와 Commercial Lease에 Demolition, Sale & Remodeling Clause라고 하는 것이 있다.

Lease 기간중 건물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경우에 Lease를 파기한다는 귀절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적이라고 하는 문구가 어느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매우 애매하다. 5%도 될 수 있고, 50%도 될 수 있으므로 Landlord에게 유리한 조항이므로 삭제하고, 대신에 파괴후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수리가 불가능할 시는 Lease를 파기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Commercial Lease에는 폭동, 화재, 천재지변등으로 파괴될 때에는 120일 이내에 수리 못 할때에 Lease를 무효화 한다는 귀절이 있다. 그리고 Commercial Plaza Lease에는 날짜로 하지않고, 사용하는 가게가 완전파괴되든가, Plaza전체의 건물의 50%가 파괴될 때에는 무효화 한다는 귀절이 명시되어 있다.

Landlord가 Plaza를 헐고 다시 짓는다든가, 매도한다든가, 또는 개조할 때에는 60일, 또는 30일의Notice를 주고, 쫓아낼 수 있다는 조항이 Commercial Lease의 끝에 기입되어 있다. 이것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다음은 Exclusivity인데, 독립된 조그만 가게인 경우는 문제가 안되지만, 큰 Plaza에 들어갈 때에는 동일종류의 사업체를 넣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같은 종류의 두 가게를 넣으면 두 가게가 다 타격을 받으므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만 알 수 없으므로 꼭 삽입해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다음은 Business Use인데, Grocery와 Variety가 과연 상품으로 보아 분명히 한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므로 가능한 한 Grocery & Variety로 두가지를 다 기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로 인해서 한국분들이 Grocery가게와 Variety가게간에 큰 싸움이 벌어진 예를 본 기억이 있다.

한국분들이 가게를 Lease할 때에는 Lease와 집세보다도 Option에 더 식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Option의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Arbitration이다. 이것은 Lease 기한이 끝나면 모든 기타조항은 그대로 두고, 임대료만 다시 협상한다고 되어 있다. 이때에 쌍방이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될 때에는 각자 대표자를 내세우고, 제3자를 넣어서 3인이 결정한다.

그런데 이것이 쌍방에게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안주는 이상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실제 문제에서 이 조정역은 대학교수, 법률가 또는 부동산업자등 전문가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게된다. 가장 안전한 것은 미리 Option 이후의 임대료를 결정해 놓는 것이지만 이것도 경제사정 여부에 따라서 정확성을 기하기는 어렵다.

둘째는,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의 상승률에 따라서 결정하는 방법인데, Option 직전의 달의 C.P.I.와 Lease 시작시의 것을 대비해서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세째는 Arbitration도 없고, C.P.I.도 없고, 그 당시의 상통되는 시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인데, 가장 나쁜 것은 이상 세가지가 다 없고, 단지 쌍방의 합의로 결정한다는 것이 가장 Tenant에게 불리한 것이다.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영철

〈장편연재〉

영원의 방랑객 ㊶

고 마태오

제4장 딴따라 미사의 파동

밤 11시 미사시간이 되었다. 부리노의 세 아이들은 이미 잠자리에 든 후였다. 아이들을 통해 가정미사에 대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일찍 자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부리노 부부는 새옷은 아니지만 단정한 옷차림에 기타와 성가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미사가 시작되었다. 부리노 부부는 기타반주에 맞추어 입당송 노래로 시편 23장 '야훼는 나의 목자'를 샨송곡으로 불렀다. 당시 모래알교구에서는 예전쇄신에 따라 전통적인 성가대신 시편을 샨송곡으로 바꿔 기타반주에 맞추어 미사때 노래하기 시작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아란 풀밭에 이몸 뉘어 주시고
고이 쉬라 물터로 나를 끌어 주시니
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 돋아라.

주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곧은 삶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어라.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그 지팡이에
시름은 가시어서 든든하외다.

내 원수 보는 앞에서 잔치상 차려주시고
향기름 내 머리에 발라 주시니
내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외다.
한평생 은총과 복이 내 몸을 따르리니
오래 오래 주님 은혜 안에 나는 살으오리라.

너무나도 훌륭한 노래였다. 전문적인 샨송가수에 못지않은 세련된 노래였다. 그것은 또한 지극히 감동적인 동시에 주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하고 신뢰하는 영혼의 승화된 기도였다. 이 시편 23장을 노래하는 부리노 부부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을 지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내 눈시울이 뜨거워져 오는 것을 나는 강력히 느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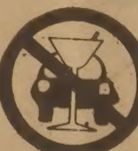
미사는 진행되었다. 미사경문과 성경말씀의 한마디 한마디가 새롭게 느껴지며, 내 마음을 그 어떤 기쁨으로 충만시키고 있었다. 사제서품후 첫미사를 지내던 그 때 그 감격을 나는 다시 체험하고 있었다. 미사 분위기는 엄숙했으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즐겁게 해주는 친근감이 거기 넘쳐 흐르고 있었다.

미사는 주님의 십자가상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엄숙한 제사만은 아니다. 미사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줄을 몰랐던(요한 20장20절) 제자들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을 성체 안에서 체험하는 신앙과 기쁨을 나누는 제사이기도 하다. 미사는 또한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마태 9장 13절)하신 주님과의 만남의 제사인 동시에 죄인의 회개를 위해 베풀어진 하늘나라의 잔치(루가 15장7절과 10절)인 것이다.

부리노 부부는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황송해서 울었고, 기뻐서도 울었다. 그리고 주님의사랑이 진정 고마워서 또 울었다. 그들은 노래하며 눈물을 흘렸고, 기도하면서도 눈물을 흘렸다. 그들을 성체를 눈물 속에 받아 먹었고, 성혈을 받아 마실 때 성작 안에 눈물이 흘러 떨어졌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정 사정도 모르는 짐승같은 흉악한 놈"이라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던 부리노에게도 눈물이 다 있었나를 의심할 정도로 그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그칠 줄을 몰랐다.

"회개자의 진정한 통회의 증거는 첫째로 눈물 속에 나타난다."라고 어느 성인이 말했듯이 그날 부리노가 흘린 눈물은 그 옛날 주님의 발을 눈물로 씻으며 머리카락으로 닦고, 거기에다 값진 향유를 발라드린 마리아·막달레나의 통회와 감사의 눈물과 같았으리라. 나도 미사를 봉헌하며 부리노 부부를 따라 여러번 눈시울을 적셨다. 나의 그 눈물은 사제서품후 미사 지내며 두번째 흘린 눈물이었다.

〈계 속〉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82. 세계복음운동 토론토집회

철인 파스칼은 인생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였읍니다. 저마다 성격이 있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만심 때문에 인생들은 주님을 떠난 방랑자가 되었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자신을 찾아 모든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야 하겠읍니다.

세계복음운동 토론토지회 김선운목사님을 모시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셔서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강사소개》
미국 웨스터민스터 신학졸업. 미국 체스남리및 규니드대학교종교철학교수 역임. 필라델피아북부한인교회담임목사. 세계복음 운동 회장.

주 제 :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요한복음 6장68절)
강 사 : 목사 김선운(Ph.D)
일 시 : 5월21일(금)~23일(주일) 매일 저녁7시30분
장 소 : 벧엘교회당(401HWY와YONGE 동남쪽코너) 395 OLD YONGE ST.
주 최 : 세계복음운동 토론토 지회 THE GOSPEL TO THE WORLD INC.
TEL : 221-1382(교회) 496-2967, 431-7391

개점7주년

Noritake

크게 싸게 팔기

5월18일부터 6월12일

AMIK CRAFTS
4841 Yonge St. Sheppard Centre

○최고급 150종류 진열
○어느 품목이든 정가에 35% 할인
○접시 한장도 살수 있음
○기타 원가로 파는(50% off) 8인조, 12인조가 몇상자 있으니 일차 구경오세요.
○일류백화점보다 비싸면 현금 즉시 반환
○냉면그릇과 큰접시는 정가에 75% 할인
○저희가 끝나면 다음은 Simpson's에서 Sale 하는데 5% 이상 비쌉니다.

221-5990 (Mrs. 고)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預金·積金 비밀保障 폐지

羅재무、財務委보고 은행주주로 經營委구성 執行部 專橫방지

實名·假名거래자 差等과세 私債업자 稅務調査도 강화

국회財務委는 13일하오 羅雄培재무장관으로부터 李哲熙·張玲子부부의 巨額어음사건에대한 경위와 중간조사결과및 앞으로의 金融정상화 대책에관한 보고를 들은뒤 밤늦게까지 이에관련한 일련의 질의를 벌였다。이날羅장관은 「巨額어음不渡에따른문제와對策」에 관한 보고에서 『정부는 이번 사건과같은 금융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위해 「예금·적금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또는 폐지하고 대규모 전문私債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사채를 제도금융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또 자금의 개별적인 흐름을 파악할수있도록 金融去來를 實名儀제도로 이행토록 유도키로하고 이를 위해 실명 거래와 가명을 사용한경우 차등과세토록 稅法을 개정할방침』이라고보고했다。

羅장관은 이밖에도 「금융과동의 再發방지를위한 개선대책으로 ①은행감독원의 감독범위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여 융기관전반에대한 종합감독체제로 개편하고 ②은행집행부의 전횡을 방지하기위해 주주로구성된 경영위원회를 설치하며 ③상호신용금고의 대형화와 신규설립의촉진및 금리의 실세화④私債·지상배당등에 대한 세제개편등 제도적인개혁을 강력히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재무부는 이번 私債파동에 관련된 6개기업의 처리대책을 확정보고했는데▲日新제강은 부도처리와 더불어 불실기업으로정리하고▲共榮토건은 法定관리로 전환하여재건방안을 모색하며▲太陽금속、라이프(株)、三益住宅、해태제과는 자금지원을 통해 자생노력을 돕기로했다。

日新제강은 부도처리와함께 기업을 정리하면서 共榮토건은 法定관리로 전환하여 재건키로한것은 한국해외건설업체의 공신력추락방지와 금융기관손실을 회소화하기위한 조치라고 보고했다。

◇한국經濟를뒤흔든 張여인의 巨額私債파동에 고위財務관료들은 할말을잃었다。13일하오 국회財務委에출석한 羅雄培재무장관을 비롯한 고위재무책임자들은 엄청난 金融不條理의 배경과 원인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怒氣어린 질타에 무거운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사진앞줄④로부터 羅장관과 姜慶植차관、 뒷줄⑥로부터 黃秀坤은행감독원장、金建한은부총재、 金書鶴국세청장、 朴鳳煥증권감독원장。

惡性 資金源색출 李法務 밝혀

李鍾元법무장관은13일『李·張부부사건과 관련、사채시장전반에대한 수사를 펴는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어음사기등 범죄행위와 이에 가담한 악성자금원을 색출하는대로 세금추징등 적법절차를 밟게될것』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또 이사건을 계기로 지하경제의 부조리를 제도적으로 일소하는 방안이 관계부처에서 마련되고 있다고 전했다。

6개企業 不實채무 1兆4百億원

李哲熙·張玲子부부가 일으킨 私債파동과관련된 共榮土建·日新製鋼·太陽金屬·라이프(株)·三益주택·해태등 6개기업의 금융기관차입에대한 담보부족과 부실어음및 납품대금미불금을 포함한 채무액등 부실채무액은 (支保포함)은 총1조4백24억원에 달한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재무부가 국회재무위에 보고한 자료에의하면 이들 6개기업의 부실채무액은▲共榮토건 4천5백12억원▲日新제강1천8백34억원▲태양금속 1백8억원▲라이프(株) 1천8백8억원▲삼익주택 1천2백22억원▲해태 9백40억원등으로 나타났다。특히 은행과 단자회사등 금융기관의 담보부족액이 7천1백30억원에 달하여 앞으로 금융기관의 부실화 과동으로 이어질 우려가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경찰、국세청및 금융기관과 합동으로 ①大和산업의 재산과 李哲熙·張玲子부부의 개인재산②日新제강의 裵吉勳·朱昌均및그 배우자 ③共榮토건관련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조사하여 채권을 최대한 확보키로했다。

또 張玲子여인과 관련된 2천6백24억원 (6개업체)의 어음은 발행에서 상환까지의 거래기간이 2월26일부터 9월17일사이로 돼있으며 共榮은 모두 4천5백93억원、日新은 2천6백91억원의 금융채무를 지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共榮은 4월말 현재 張여인이 사용한 1천4백68억원 외에 3천1백25억원의 금융부채를 지고있는데 담보는81억원에 불과해 4천5백12억원의 담보부족을 나타내고있다。日新은 張여인어음 5백9억원을 합쳐 모두2천6백91억원의 금융부채를 지고있으며 담보부족이 1천8백34억원이나된다。

이밖에 張여인과관련된 나머지 4개기업은▲太陽금속2백19억원 (담보부족1백8억원)▲라이프주택2천1백80억원 (담보부족1천8백8억원)▲三益주택1천7백86억원(담보부족1천2백22억원)▲해태제과 1천2백17억원 (담보부족9백40억원)씩 각각 금융부채를 지고있다。

이들4개기업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에서 지원、張여인 사건으로 부도를 내는 일은 없도록 방침을 정했다。

종업원대책으로 日新은 새기업주가 결정될때까지 주거래은행에서 공장을 관리、공장을 존속시키기로하고 共榮의 해외건설도 차질없이 수행해나가도록 했다。

어음用紙 適正의 2倍교부
은행감독원 報告

한편 이날 은행감독원은별도보고를 통해 大和산업및 관련회사에 대한 은행대출은 대화그룹사에 10억6천만원、그리고 일신제강에 2백42억원、공영토건에 1백43억원 등 도합 3백95억6천만원이 산업은행과 조흥은행에서 대출되었고 이에대해 2백46억원의 담보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또 대화산업및 張玲子명의의 예금10억2천9백만원、大和가 알선한 3개월짜리 정기예금이 4백91억원이라고 밝히고 일신제강및 공영토건 명의로 나간 3백85억원의 대출금이 결과적으로 大和의 私債자금을지원하게되었다고 분석했다。

감독원은 또 은행이 거래기업에 교부하는 어음용지가 적정교부량의 2배가량 과다교부되었다고 보고했다。감독원은 이같은 사고의 재발을막기위해 종합여신관리체제의강화、거래기업 부실화에대한 금융기관의 사전예측기능의강화、은행의 예금 과당경쟁풍토의 개선및 어음、수표帳교부방식의 개선등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나가라고 밝혔다。

地下경제病理 근절시켜야
질문 선의의 被害 수습책 促求

국회財務委는 13일하오 羅雄培재무장관을 상대로 李哲熙·張玲子부부의 巨額어음사기사건과 관련、정치권력과의 結託、정치자금 관련여부를 추궁하고 私債시장의 不條理、금융病理등 이사건에 얽힌 배경과 원인을 집중추궁하고 사후수습對策을 촉구했다。

財務委는 14일상오10시 회의를 속개、정책질의를 계속한다。

이날밤늦게까지 계속된 財務委에서 金文元 李英駿 朴完奎(이상民韓) 朴鍾寬(民正) 李聖秀(국민) 林采洪의원(議同)등은 이번 사건은 『하루 수십억원이 거래되어도 세금한푼내지않은 私債시장의 治外法權상태때문에 빚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큰손」의 정체를 밝혀 地下경제의 病理를 근절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체통화량의 7.5%가되는 1조2천억원의 私債시장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궁하고 이사건으로인한 선의의 피해자에대한 대책은무엇이며 관련기업에대해 계속 구제금융을 해주는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3黨總務 내일再論
國調權 발동위해 週末께 임시國會

民正黨이 13일 張여인의 巨額어음 詐欺사건을 규명하기위해 국회國政調査權의 발동을 검토하기로 방침을세우고 民韓 국민당도 國政調査權의 발동과 이를위한 임시국회소집을 요구함으로써 검찰수사가끝난뒤 빠르면 來週末께 임시국회가 소집될것 같다。

民正 民韓 국민등 3黨총무들은 이날 2차례 모임을 갖고 國政調査權의 발동과이를 위한 임시국회소집문제를 논의했으나 財務委의 활동결과를보고 15일상오10시 다시 만나 이문제를 再論매듭짓기로했다。

이에앞서 民正黨은 긴급당직자회의를열고 國政조사권문제를他黨과협의결정하기로 했는데 李鍾贊총무는『1주일후면 검찰수사가 종결될것으로 보이기때문에 國政調査權이발동된다면 그후가될것』이라고 전망하고『수사중이거나 訴追중인 사건에대해서는 조사권을 발동할수없다는 法규정이있으나 사건자체보다 사건을 중심으로한 금융제도 전반에 관한사항을 조사한다는 정치적타협이 이뤄지면 조사권행사에 문제가없을것으로 본다』고말했다。

農水産部2次官補 曺京植

정부는 13일 농수산부제2차관보에 曺京植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을 전보발령하고 기획관리실장에 金文憲 農振廳차장、農振廳차장에 李丙基 농수산부제2차관보、경제기획원예산실장 (職代)에 文熹甲예산심의관을 각각 轉補 또는 승진발령했다。

鑛振公 사장에 金復東씨 발령

정부는 공석이된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에예비역육군중장 金復東씨(前陸士교장)를 13일자로 임명발령했다。

◇金復東광업진흥공사사장 略歷 ▲慶北青松출신·49세 ▲陸士11期卒▲陸大卒▲師團長▲陸士校長▲육군중장예편

◇韓·라이베리아共同성명 署名
全대통령과 도元首가 13일 청와대에서 韓·라이베리아 공동성명에 署名하고있다。

韓·라이베리아頂上 공동聲明
農水産등 民間합작
서울常住公館 設置합의

全斗煥 대통령과 라이베리아의 새뮤얼·카논·도 국가원수는 13일 상오 공동성명을 발표、양국은 現存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위해 상호협력의 범위를 넓히고특히 농업개발、수산、중소제조산업및 기술분야의 경험을교환하는 한편 이들분야에서민간기업의 合作활동을 장려키로 합의했다。

도원수의 離韓에앞서 발표된 17개項의 이공동성명은또 양국원수는 경제·기술협력분야의 조사평가를위한 한국경제사절단의 파견문제에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라이베리아의 조속한 서울常駐공관설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서 도원수는 韓半島의 평화적統一달성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과 主導的역할에 전폭적인지지를 표명하고 이를 계속 지지할 것을약속했으며 全대통령은 88년 서울올림픽이 세계모든국가들간의 이해와 友誼증진을 위한 祭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했다。

이 성명은 이어 도원수는 全대통령의 라이베리아방문을 초청했으며、全대통령은 이를 수락、방문일자는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키로했다고 밝혔다。

도원수는 이날 離韓에앞서 기자회견을 가진뒤 청와대로 全대통령을 告別방문、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작별인사를 나눴다。

도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한국문제는 南北韓 당사자의 참여없이 어느 국제회의에서도 토의돼서는 안된다』고 말하고『한국의 통일문제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룩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원수는 4泊5일간의 訪韓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날 상오11시 離韓했다。

사우디 郵遞省장관
全대통령、勳章수여

全斗煥 대통령은 13일하오 청와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아위·다위시·카얄郵遞省장관을 접견하고 修交훈장 光化章을 주었다。

이자리에는 金宗鎬건설、金容烋총무처장관과 에사·알노와이저駐韓사우디아라비아대사대리가 배석했다。

英、아르헨機 2臺 또擊墜
4일째 遭遇 英헬機·프리기트艦도 被擊

【런던12日UPI·聯合=聯】포클랜드탈환작전에 나서고있는 영국기동함대는 12일 연4일째 아르헨티나軍과 조우、영국함대를 공격하던 아르헨티나軍 A 4스카이호크전폭기 2대를 격추시켰다고 영국국방성이 발표했다。

국방성은 아르헨티나軍의 美製A 4전폭기3대가 이날하오 2백해리봉쇄구역내에서 영국기동함대소속 군함1척을 공격해왔으나 영국함대의 반격으로 2대가 격추되고 1대는 도주했다고 밝혔다。

국방성은 영국함대가 아르헨티나機격추직후 아르헨티나 전폭기들로부터 보복공격을 받았으나 아직영국측의 피해는 보고된바 없으며 英國軍 시·킹헬리콥터 1대가 추락했으나 아르헨티나軍의 행동과 관련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포르투갈訪問 教皇피습모면
파티마寺院서 칼든怪漢공격

【파티마(포르투갈)12日AP=聯】교황 요한·바오로2세가 12일밤 중부포르투갈의 파티마사원에서 칼을 소지한 괴한의 습격을 받았으나 보안요원들에의해 위기를 모면했다。

포르투갈의 국영TV방송과 ANOP통신은 성직자복장에 칼을 소지한 한괴한이 파티마사원의 계단에서 요한·바오로 2세교황에게 고함을 치면서 접근했으나 교황청보안요원들에의해 황급히 제지되어 연행되었다고 보도했다。

교황은 이날 포르투갈에도착하여 촛불예배에 참석하기위해 파티마 사원을 방문했다。

★관련기사7면

32歲 스페인靑年

한편 파티마의경찰은 이괴한이 32세의 후안·페르난데즈·크론이라는 청년이며 12일 스페인으로부터 포르투갈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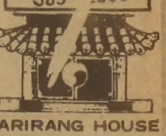
社會漫評

〃요즘 제精神갖고 사는사람 손좀 들어보시오…〃

地平線

잠긴 승용차의 문을 옷걸이 철사로 연다。숫제 창유리를 부수어 문을 열기도 한다。부랑아 차림의 젊은이가 부품 찻속의 물건이나 부품을 들고 달아난다。한낮、뉴욕도심 큰 길가에서의 일이다。미국에 흔한 車輛侵入窃盜의 한 장면이다。▼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8천명의 행인이 그 옆을 지나갔다。7천명은 사건이 진행중인줄도 몰랐다。사건을 목격한 1천명중、경찰관을포함한 40여명은 범인을 돕자고 들었다。「착한 사마리아人」이 아닌「어리석은 사마리아人」이다。범인을 제지하자고 나선 사람은 고작 10여명。▼이것은 미국포덤대학의 사회심리학자 해롤드·태쿠시언교수의 실험결과다。그는 행인들의 반응을 정확하게 재기 위해、어떤 경우에는15m쯤 떨어진 곳에 경찰관을 배치했다。이 경우에도 실험결과는 비슷했다。오히려 몇몇 경우에서는 『가까이에 경찰관이 있다』고「학생도둑」에게 귀띔하는 사람이 있었다。▼비슷한실험이 미국과 캐나다의 19개 도시에서 거듭 됐다。그 결과는 뉴욕에서의 실험보다 나을것이 없었다。마이애미、오타와등 4개도시에서는 범행을 제지하거나 신고하자고나선 행인이 한사람도 없었다。실험의 결과는 도시사람들의 무관심을 드러낸다。그러나 태쿠시언교수는 실험결과를 분석하여 또 한가지 중대한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그는 사건의「實演」이 끝난 직후 목격자들을 면접했다。많은 사람의 대답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것이었다。일반시민들은 범죄현장을 처음보기 때문에、어떻게 대처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결론이다。범죄대책ー우리 처지에서는 대간첩대책을 포함하여 시민들의 신고정신을 강조하는、마당에 참작함직한 지적이다。▼내무부가 宜寧사건의 사후대책으로 구상하고 있는「住民申告網」이란 것도 이런각도에서의 발상이 필요하다。宜寧사건에서 좀더 신고가빨랐다면 하는 아쉬움이없지 않지만、일반시민들은、태쿠시언교수의 지적처럼、큰사건일수록 어찌할바를 모른다。이럴때 아쉬운 것은、무엇을 어떻게 신고할지의 교육이다。예비군·민방위 교육의 제1조도 신고와 신고전달을 위한 교육에 두어야 한다。▼「住民申告網」에는 그런 교육효과가 있을 것이다。「申告要員」을 지정한다고 해서 그 이상의 무슨 「責任」을 기대함은 잘못이다。그리고 신속한 신고는 신고를 받는 쪽의 대응이 믿음직하다는 신뢰에서 비롯됨을 기억해야 한다。宜寧사건에서 드러난 뼈아픈 허점은、신고體系의 미비보다 신고對應의 불비쪽이더 컸으니까…。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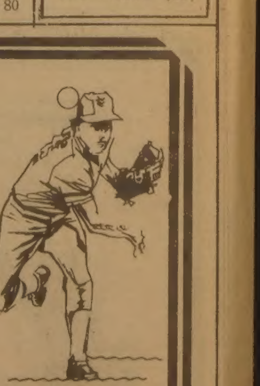
새로나왔읍니다

DIGITAL EXCELLENCE

ORGAN계의 새로운 혁명!…

TOTAL DIGITAL CONTROL DX SERIES…

제1회 한국일보사 배
어린이 야구대회



일 시 : '82년 7월 3일(토) 아침9시부터
장 소 : 코로네이션 파크(구장 2개 사용함)
(CNE 정문앞, 레이크쇼어 × 더퍼린과 베더스트 사이)
선수자격 : 197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참 가 비 : 팀당 $50
시 상 : 1～3등, 최우수 선수상, 피처상, 타격상, 미기상, 감투상
★OASA(온타리오 아마츄어소프트볼협회) 규칙을 적용하되 자세한 내용은 감독자 회의에서 결정할것임.
심판및 진행위원장 : 박 재 선 씨
감독자회의 : 6월24일(목) 오후7시 〈한국관〉
연 락 처 : 한국일보사 송광호(☎ : 533-2361) 브랜돈스포츠사 이건영(☎ : 598-3732) 박재선 (☎ : 755-6434)
주 최 : 한국일보 토론토지사
후 원 : 토론토 한인회 대한체육회 캐나다지부

蘇, 최초核추진航母 건조

美國防소식통 원거리攻擊 목적 6만톤級규모

【워싱턴12日=聯】 소련해군은 원거리의 적군기지를공격하기위한 제트전투기 배치능력을 갖춘 소련최초의대형해추진항공모함건조에 착수했다고 미국방성소식통들이 12일 밝혔다.

이소식통들은 5년이내 완성을 목표로 흑해에면한 니콜라예프 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이항공모함의 규모는 현재활동중인 키에프급항공모함의 2배로서 지난60년대에 취역한 미항공모함 존·F·케네디호와 맞먹는 약6만톤급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키에프호와 민스크호등 소련의 키에프급항공모함은 증기터빈엔진에 의해 추진되며 수직이착륙기를 포함 약40대의 함재기를 탑재할수있으나 제트전투기는 탑재할수 없다.

人質 2명석방 과테말라 게릴라

【과테말라시티12日AP=聯】 약20명의 과테말라좌익게릴라들이 과테말라군정당국의 탄압에 항의하여 12일 과테말라주재 브라질대사관을 점거, 대사등 10명을 인질로붙들고 시위를 벌이다 2명을 석방한후 군·경과계속 대치하고있다.

과테말라 관리들은 안토니오·카를로스·데·압레우·에·실바대사의 비서와 경찰관한명등 인질2명이 대사관점거 얼마뒤 석방돼 적십자앰뷸런스에 실려 대사관저로직행했다고 밝혔다.

核武器생산 상호협력

이-南阿共-臺灣 中性子彈·戰術核폭탄등

【텔아비브12日AP=聯】 이스라엘·南阿공화국·臺灣미국은 범위한 종류의 核무기를 생산하기위해 자원을 공동관리하는등 상호협력을 해오고있다고 이스라엘의 하레츠紙가 12일 미국과 영국에서출간된 한 서적을인용 보도했다.

「바그다드 상공의 2분간」이란 제목의 이책은 이核무기들가운데는 中性子彈·核포로 발사하는 전술核폭탄·야장거리탄두미사일등이 포함된다고말하고 이스라엘은 원자탄생산을위해 세계에서가장 비용이 적게드는 농축우라늄 처리과정을 개발해냈다고 주장한것으로 하레츠紙는 전했다.

韓美修交 百주기념 美사절단 19일來韓

【워싱턴12日=聯】 美합참의장과 駐韓유엔군사령관(1955~57)을 지낸 리먼·렘니처장군을 단장으로한 약40명의 美대통령사절단이 韓·美修交1백주년기념행사에참석하기 위해 오는19일 서울에 도착할 것이라고 정통한소식통들이 전했다.

對言論人폭력비난 올IPI총회폐막

【마드리드12日UPI=聯】 한국을 비롯, 자유세계 43개국중진언론인들이 참석한 제31차국제신문인협회(IPI)총회는 12일 공산권을 비롯, 세계각국에서 자행되고있는 언론탄압과 언론인에대한 조직적인 폭력 사태를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제32차 총회는 83년5월16~18일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다.

IPI는 결의문형식으로 된이 성명에서 엘살바도르정부가 내전취재중 사망한4명의 네덜란드 언론인에 관해 아무런 해명도하지않고있다고 비난하고 이란·아르헨티나·南阿共·터키·모로코등에서 언론인에대한 조직적인 폭력사태와 언론검열강화등 탄압이 계속되고있다고지적했다.

北傀, 對南교란선동 狂奔

한국內 일련의 「事件」관련

【서울=聯】 북괴는 釜山미文化院 방화사건이후 대남모략·비방선전을 일층 가열화하고 있으며 지난3월이후 현재까지 한국사회의 안정기조를 깨뜨리기위한 정부·국민간의 이간선전과 국제사회의 여론을 오도키위한 反韓·美선동공세를 약2천3백여건에 걸쳐 실시, 악의적인 대남선동에 광분하고 있다.

그동안 북괴는 釜山미문화원 방화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남한인민들의 누적된 반미감정을 폭발시킨 애국적행동」운운으로 범인들을 비호하는가운데 金日成종합대학(3·25)을 필두로 각 대학별로 성토모임을 벌였고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의 반미성명이발표되자 「祖統聲明」(4·22)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4월22일 平壤市 군중집회를 시발로 각도·시별로 이같은 선동집회를 개최, 대남선동에 열을 올렸으며 宜寧총기난동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는 이를 光州사태와같은 것인양 모략·비방하고있다.

얼굴

金復東 鑛振公사장

外柔內强의 그릇큰 武人

武人답게 그릇이 크다. 전형적인 외유내강 타입이다. 육사시절 송구부장을 지내는등 스포츠는 만능. 가정에서도 자상하고 가정적이어서 딸넷이 아버지를 무척 좋아한단다.

지휘관때나 육사교장 시절에도 항상 부하들을 보살펴주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어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 【慶北 靑松출신 · 49세】

한국일보

◇슈퍼스타와 뱀 美프로야구계의 슈퍼스타 레기·잭슨이 지난 1월 ABC-TV의 슈퍼스타즈 프로그램 촬영차 마이애미에 왔을때 진·비얀과 이곳에 새로개장된 동물원에서 빈 3.7m짜리 뱀을 가지고 놀고있는 모습. 그는 최근 캘리포니아·에인절즈 팀과 계약을 맺은것으로 알려졌다. 【마이애미AP航空便=聯】

癌이 무너진다

世界의 抗癌전선…本社기자 現地리포트

<10>

美國 癌협회

미국인들의 癌을 잡는 노력이 가장 조직적으로 돼있는 곳이 미암협회(American Cancer Society)이다.

美암규제법이 공포되기 수세기전인 1935년 뉴욕한구석에서 조직됐던 이 민간단체는 50년세월을 지나는 동안 2백50만회원을 갖게됐으며 회원들이 직접내거나 모금해 들이는 돈이 年1억7천만달러에 이르게됐다.

뉴욕맨해턴 3번街의 ACS본부에 집계되는 1억7천만달러(약1천2백억원)는 癌전쟁에 투입되는거국적인 방위성금으로 이해된다. 80년말스탠퍼드大에인터페론의 癌약효성연구비로 6백만달러의 거액을 주기도했다.

美전국50개주와 뉴욕, 시카고등 6개대도시에 걸쳐 58개支協(Division)을 두고 그아래 3천1백30개 단위협회(Unit)를 갖고 있으면서 癌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달라붙고있다.

美전역 58개支協

암예방캠페인, 암연구비지원, 암환자보호등등.

무료봉사를 원칙으로하고있는 2백50만회원들은 어떻게든 地上에서 癌이란 존재를 멸살해야겠다는 고체성고집같은것이 뭉쳐있는사람들. 암에 걸렸다가 살아난 이도있고 암으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도 있다.

현재 2백50만회원을 대표하고있는 로버트·V·허터회장은 그 대표적인 인물.

콜럼비아大병리학교수겸 뉴저지주 세인트·바나바 메디컬센터의 암과장인 허터는 지난2월 뉴욕 아스토리아호텔에서 열린 ACS이사회를 주관하는동안 기자와 단독인터뷰시간을 내줬다.

250萬회원이 無料봉사로 똘똘뭉쳐

"「망할놈의 癌」에 항복말라"

豫防캠페인·환자 보호에도 앞장

自費예산 年1億7천만弗로 美전역에 그물組織

病棟에 목사등 배치…「鬪癌魂」길러

『나는 두 부모를 폐암으로 잃었다. 對암전쟁은 이제 의학계만의 단계를 넘어 인류전체가 공동으로 수행해야할 全體戰단계에 접어들었다. 우리는 특히 지난 70년대를 지나오면서 對癌戰의 전세를두고 많은 축배를 들어왔다. 적어도 50가지이상의 새약이 개발됐고 投藥法도 크게 진전됐다. 나는 암정복을 위한 최후의 축배를 20세기가 다가기전에 들수있을것을 확신한다』

그는 지난세대에 벌여온 美암협회의 업적을 일일이 들추었다.

담배에 경고문도

1959년부터 1972년까지 실시한 10만미국인들을 상대로한 「암의환경조사보고서」는 그중 대표적인 것이었다. 10년이넘도록 관찰하고 분석해서 만든 이 보고서는 담배가 肺암의 결정적인 원인이라는것을 발견하고 담배갑에 『담배는 당신의 건강을 해친다』라는 귀절을 의무적으로 써넣게했으며 그밖에 담배는 위암, 방광암등에도 극히위험하며 石綿, 인공조미료, 머리염색제등에대한 發癌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내렸다.

조기진단을 캠페인하고 암을 긴 자들을위한 직장을 준비해두는 그런 일에이르기까지 그 역할은 巨大했다.

암(Cancer)이란 단어를 말할때마다 불을 켜는듯한 증오심을 보이는 허터회장. 기자는 넌지시 『귀하의 암증오감은 혹시 부모를 잃은데서 생긴것이 아닌가』라고 슬쩍 한마디 해봤다.

허터교수는 금방 오른손을 들어 절레절레 흔들고는 『나의 암에 대한 증오는 1954년 시라큐스醫科大學을 졸업할때부터』라고 말하면서 암을 정복하려는 미국인들의 노력이 결코 利己的인 범위에서 행해진는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정확한 통계는 안나와있으나 어림잡아 美암협회에 보내지는 헌금의 60%가 암과는 직접관련없는 일반헌금이고 나머지 40%쯤이 암에 걸린 경험이 있는 본인, 또는가족, 이웃의 누군가가 암에 희생된것을 보고 동정적으로 보내는 돈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ACS의 81년도 수입은 캠페인으로 모은 헌금이 1억3천만달러, ACS가 소유하고있는 헌납자들의 유산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4천만달러, 이래서 약1억7천만달러가 된다.

누가 抗癌전력을 구성하는가. 로버트·허터회장은 의학팀이 제1선이고 환자 자신과 汎사회적 세력이 2·3세력을구성하고있다고말했다.

재벌들 資金희사

美암협회는 직접 암전문의를 양성하지는 않지만 年예산 1억7천만달러를 뒷받침으로 癌의학도들의 연구를 지원하며 수많은 세미나·册字제작을통해 이들에게 연구결과의 발표기회를 열어주고있다.

『이건 사실 공언할만한 일은 아니지만 미국의 암의학도치고 연구비가없어 손을 못댄다는 말은 들어본일없다』─허터는 암정복을위한연구계획이 나오면 정부측이, 최대민간抗癌단체인 암협회가, 그리고 크고 작은 수많은 미국의 公私암지원단체들이 이를 도와 절대 아이디어가 死藏되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텍사스의 石油재벌이 시시로 내는 방대한 MD앤더슨암병원의 지원금, 뉴욕의 자동차재벌들이주는 癌硏究賞, 이런것들이 그런 예다.

암전문가들의 자질도 그만큼 尖銳化됐다.

74년미국에 암전문의제도가 생긴 이래 명문의과대학의 수석급들이 암분야로 파고 들었지만 아직까지 癌전문의자격을따낸 사람은 2천명이 채 못될정도.

암병동취재중 만나는 전문가마다 에서받은 강한 엘리트의식이 아마도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것인지 모른다.

환자가 抗癌세력이란 허터의 설명은 약간 복잡하다. 오랜동안 암은 「죽는병」으로 남아왔기때문에 환자가 암에 걸렸다는것을 알면 그저 無감각적으로 동정치료만 받아온것이 과거의 일이라는것. 그러나 허터는 환자스스로가 암과 싸우는 강력한 戰力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미암협회가 70년대를 통해 암환자에게 목이 찢어지라고 외친 구호가 『항복하지 말라』(Do' nt give up!)였다. 1년에 수백만장씩 뿌리는 抗癌캠페인전단에는 어느한구석에라도 꼭이표어가 찍혀있으며 ACS를 찾는 암환자들에게 회원들이 건네주는 첫마디도 "Do' nt give up!"이다.

생명의 끈이 한오라기라도 남아있는한 鬪癌을 포기하지말고 싸우라는 것이다.

美전국에 깔려있는 抗암단체들, 특히 암병동에는 으레 간판이걸려있고, 抗암봉사자클럽에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암을 이긴 이야기들이 수북이 모여있다.

암이란 끈덕지게 버티기만하면 인체의 어떤 抗암물질이 생성돼 그렇게 쉽게 생명을 잃지않는다는 얘기, 시간을 끌던중 새약이 개발돼 효력을 보았다는 것등등이다. 조지타운大의 롬바디癌센터가 내놓은 통계를 보면 병원에서 새약을 개발하여 시험투약을 하게될때 환자의 85%는 『실험에 응하겠다』고 승낙한것으로 돼있다.

시험투약의 경우 藥의 부작용 위험은 보다 큰것이며 더군다나 머리가 빠지고 입안이 터지고하는 그 고통이 엄청나기 때문에 환자들은 『그런 고통을 받기보다는차라리 죽겠다』라는 태도를 취하는일이 많다.

사회적지원 호소

ACS는 말하자면 이런 환자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적극적으로 바꾸는일에 발벗고 나섰던것이다. 다음에 올 환자들을 위해서도 암과 싸우라는 캠페인을 했던것이다.

암병동이라면 거의 빠짐없이 배치돼있는 목사·신부등의 성직자활동도 환자의 투혼을 기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허터회장은 암정복을위한 汎사회적지원이 우선 두가지로 모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째는 담배끊는일. 미국의 인구 1백만명을 놓고 컴퓨터로 계산해보면 항공여행 4천마일당 1명이 죽고 자동차60마일당 1명이 사고사를 당하며 등산은 1분30초만에 1명이 죽고 60세이상의 노령자는 매20분마다 1명이 죽는데 담배는 4분의3개비를 피울때마다 1백만명당 1명이 죽는것으로 된다.

담배가 主원인으로 돼있는 肺암의 경우 남자는 1950년대에 이미 癌의 주종으로올라섰고여자의경우도 1985년쯤에 肺암이 유방암을 앞지르고 최선두에 나설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담배를 끊어야한다는 것이다.

早期발견이 허터가 내세우는 두번째. 조기발견의 중요성은 기자가 암전문의를 만날때마다 귀가 따갑도록 듣던 말이다.

이번 10회로암시리즈 기사를 일단 마무리 짓는다. 그동안 이 조기진단의 필요성이란 말과함께 기자의 인상에 떠나지않는 몇가지일들이있다.

인터뷰상대방들이 친절했다는것. 전문의들을 만나기는 그리 쉬운일은 아니었다. 적어도 보름전에 인터뷰를 신청해야하며 최신의학정보를 어느수준까지는 갖고있는것을증명하나… 등의 울화통터지는 일을 해야만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절차를거쳐 일단 인터뷰에 들어가면 그렇게 친절할수가 없었다. 시간과 자료를 아끼지않고 기자에게 건네줬던것이다. 허친슨, 포트너, 단지오, 콘라드, 이런 美암학회의 거물들이 미국에서 국제정치학을 좀 공부했을뿐인 풋나기 과학기자를 상대로 까다로운 암의학이론을 되풀이 해가며 설명해준데는 지금 생각해도 고개가 숙여진다.

신속한 情報교환

전문의들간의 정보교환이 놀랍도록 신속하다는것도 크게 감명받은 일중의 하나다. 허친슨병원의 골수이식수술법, 홉킨즈병원의 집중투약법, 슬론-케터링의 간이식법,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의 부작용제거약등의 정보가 병원마다 샅샅이 전달돼있었다. 『이건 누구의 공적』『저건 어느연구단체의 업적』등의 공로를 일일이 지적하는 예의도 놀라왔지만 조그마한 성공이라도 한다면 서슴없이 정보를 확산하는 美암학회의 협동은 놀랄만한했던 것이다.

환자를 돌보는 종교단체들, 1센트에서 巨額에 이르는 汎사회적헌금들, 이런것도 잊을수가 없다.

미국의 癌정복노력. 증오라고 표현하든 鬪爭魂이라고 말하든 그것은 국경을 넘는 위대한 헌신임에틀림없었다.

〈美國篇끝〉

【鄭逸和 기자】

◇로버트·허터 ACS회장(右)은 『인류는 20세기가 다가기전에 암정복에대한 최후의 축배를 들게될것』이라고 鄭逸和기자에게 말했다.

美國의 중요癌치료기관 연락처

- ▲美국립암연구원(National Cancer Institut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Bethesda, Maryland 20014. Director Dr. Vincent A. Devita Jr. (Tel. 301·496·5615)
- ▲美암협회(American Cancer Society): 4 West 35th Street, New York, N.Y. 10001. Vice President (Information) Charles Dahle (212·736·3030)
- ▲프레드·허친슨암연구센터(Fred Hutchinson Cancer Research Center): 1124 Columlia Sereet, Seattle, Washingtnn 98104. President Dr. William B. Hutchinson (206·292·2930)
- ▲슬론-케터링 암센터(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1275 York Avenue, New York 10021. Dr. Joseph G. Fortner (212·794·6563)
- ▲조지타운大암센터(Vincent T. Lombardi Cancer Research Center, Georgetown University Medical Center): 3800 Reservoir Road, N.W. Washington, D.C. 20007. Director Dr. John F. Potter (202·625·7066)
- ▲존즈·홉킨즈大암센터(Johns Hopkins Oncology Center): 600 N. Wolf Street, Baltimore, Maryland 21205. Dr. Philip J. Burke (301·955·8822)
- ▲필라델피아어린이암센터(Children's Cancer Research Center, The Children's Hospital of Philadelpia): 34th & Civic Center Blvd. Philadelphia, Pennsylvania 19104. Director Dr. Giulio J. D'angio (215·387·5518)
- ▲MD앤더슨암센터(The University of Texas System Cancer Center, MD Anderson Hospital and Tumor Institute): 6723. Bertner Avenue, Houston, Texas 77030 Dr. Aman U. Buzdar (713·792·2817)
- ▲스탠퍼드大암센터(Stanford University Medical Center): 780 Welch Road, Suit 106, Palo Alto, Califiornia 94304 Dr. Thomas Merigan (415·497·6911)
- ▲美보건재단(American Health Foundation): 320 East 43rd Street, New York, New York 10017. Dr. Jerome Goodman (212·953·1900)

本社에 최신 「癌정보」 답지

편의제공 방침 閱覽과 貸與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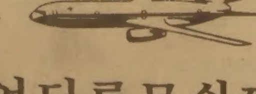
한국일보社 癌시리즈담당데스크에는 취재기자가 미국암전문의들로부터 직접받아온 최신연구논문·책자와 美국립암연구소에서 약속대로 보내오는 정기간행물로 鐵册架가 늘어나고있다.

지금까지의 정보자료만도 큰 책상자 2개를 채우고도 남을만한 분량.

유방암, 폐암, 자궁암, 위장암, 백혈병등 30개주요癌의 증상과 예방법을 간략하게설명한 美보건성정보책자로부터 프린트版으로 서둘러만든 MD앤더슨의 82년발행 尿道癌學(Urologic Oncology)에 이르기까지의 1백20種에 이르는 册字·論文등등이다.

시리즈기사 미국편을 일단 끝마치면서 암정보자료를 한국일보社도서관에 넘기기로했다. 사정이 허락하면 계속한 2차癌시리즈집필의 참고자료로 남겨두는것이다. 독자여러분의 열람願이 있으면 물론 개방할 예정. 다만 관리상의 애로로 암의 일반정보외에 미국의 최신암연구방향을 구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대여할 방향이다.

한국일보사는 이미 美국립암연구원(NCI), 미암협회(ACS), 슬론케터링암병원등에서 자료가 발간되는대로 보내주기로 약속돼있어 날로 발전하는 미국의 암정복 노력을 계속 지키게 될것이다.



IATA

어디로모실까요?

모국방문특별요금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B) 535-6004

R) 293-9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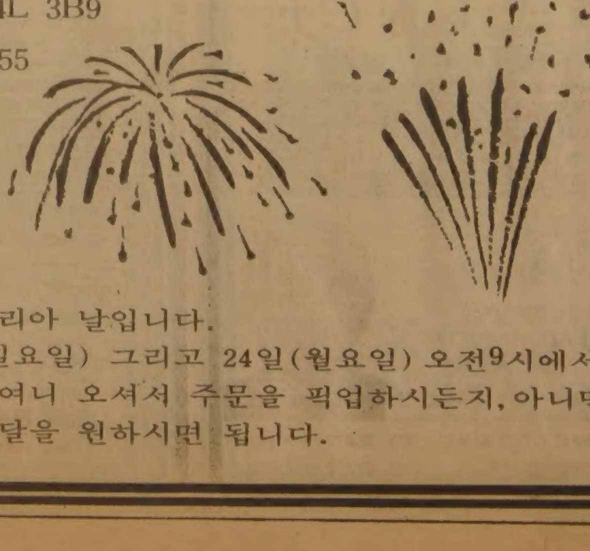
불꽃놀이

Rolls & Darlington

419 Coxwell Ave.

Toronto, Ont M4L 3B9

Tel.(416) 461-3555



5월24일은 빅토리아 날입니다.

저희는 5월23일(일요일) 그리고 24일(월요일) 오전9시에서 오후4시까지 문을여니 오셔서 주문을 픽업하시든지, 아니면 전화로 배달을 원하시면 됩니다.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 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스피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및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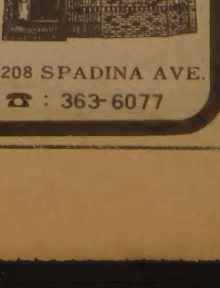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MRS. 전

202+208 SPADINA AVE.

☎: 363-6077

"林在琇 전朝銀行長등 소환"

檢察 수사진보강 私債의혹 본격수사

犯證 드러나면 모두拘束
권력층 庇護등 집중調査

李哲熙·張玲子씨부부 거액 어음사기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는 13일하오 前朝興은행장 林在琇씨와 前商業은행장 孔德鍾씨를 곧 소환, 張여인을둘러싼 금융비리부분에 대한 본격수사에 들어간다. 검찰은 이들 두 행장으로부터 거액 무담보대출 경위와 어음용지 대량 유출경위및 은행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권력층 비호세력개입여부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며 범증이 드러나면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두 은행장이 14일 열리는 국회재무위에 출석하도록 돼있어 국회가 끝나는대로 소환키로했다.

검찰에 소환된 銀行간부들

◇12일에이어 13일 대검중앙수사부에 소환된 朝興은행간부(上)와 商業은행간부들(下).

검찰은 이에앞서 12일밤 朝興은행 德壽지점장 K씨, 차장 L씨, 당좌담당대리 I씨, 전半島지점장 L씨(현 본점영업부장)와 商業은행 光化門지점장 K씨, 대리 L씨등 은행관계자 10여명을 연행철야 심문했다.

검찰은▲朝興은행이 張씨부부에게 부실또는 무담보로 2백억원 상당을대출해준 경위▲共榮토건에 대해 어음용지를 무제한으로 지급한경위▲금융특혜에 따른 금품수수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캐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張씨가 지난해5월에서7월사이에 정확한 사전정보를 입수, 증권투자를 통해 거액을 벌었다는 사실을 중시, 당시의 정보유출 여부를 캐기위해 증권거래소 심리부관계자들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들부부에게추가된 사기혐의 부분의 입증을위해서는 張씨의 어음거래 관계전모와 자금유통경로를 소상히 밝혀야 할것으로보고 張씨의 어음거래에 관계된사채업자나 기업관계자 은행실무자등 전부를 참고인으로소환신문하고있다.

검찰은 이밖에도▲중간수사발표에서 미진한것으로 지적된 자금의 구체적 소비처▲드러나지 않은 도피자금이나 개인재산의 은닉여부▲용도불명으로 나타난 77억원의 행방등에대한 수사도 병행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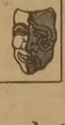
검찰은 이사건수사가 여러갈래로 병행되면서 장기화될 것에 따라 수사팀을 대폭보강키로하고 원래의 대검중앙수사부2과(成敏慶부장검사)외에 3과(金道彦부장검사)와 4과(辛健부장검사)를 동원했고 서울지검특수부검사 4명 대검검찰연구관2명 서울지검 형사부검사1명 남부지청에서1명등을보강하는등전검찰력을투입하고있다.

또다른 「큰손」
自首한 도둑왕 任春三씨
自家用타고 변호사대동 "손씻겠다"

「큰손」들은 모두 태연하고 늠름한 것인가? 사채업계의 「큰손」 張玲子씨가 검찰에 구속되고도 『나를 풀어주면 금방이라도 수습하겠다』고 큰소리쳤다더니 이번에는 「도둑왕」 任春三(36·사진)이 자가용에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지난11일검찰에 자수했다.

「林꺽정」 「밤의 푸마」 등으로 불리는 任春三은 전국의 도범담당형사들에게는 잘알려진 도둑중의도둑. 任의 범죄행각은 놀랍다.

「똑똑한 부하 2~3명만」데리고 지난15년동안 고급주택가만 털었는데도 단한번 잡히지 않았다. 주로 초저녁시간을 택해 바람처럼 담을 넘어들어가 귀금속류만을 빼내 장물시장에 팔아왔다.



고교시절부터 평행봉과 기계체조로 단련된 그의몸은 「푸마」와같이 날래, 경찰은 도주하는 그의뒷모습만을 쳐다볼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기소중지처분만도30여회.

도둑질해서 모은 거액의 돈을 명동 유흥가에서 물쓰듯이뿌려 「회장」 호칭을 최고의 예우로아는 환락가에서 「任회장」으로행세했다. 그는 붙잡혀 들어간 동료도둑들의 뒷바라지를 암암리에 해주는 도둑으로서의 「협기」조차 지니고있어 도둑사회에서는 선망을받는 존재였다.

서투른 도둑은 사람을 해친다는 것이 형사들 사이에서의 「定說」로 되어있지만 任은 한번도 사람을 해친일이 없다. 「작업」중 들키는 법이없으니 해칠이유도없고 오로지 목표로 삼은 금품만을 귀신처럼 빼내 달아났던것.

한시대의 「地下」를 상징하는 또하나의 「큰손」인 任은 경찰은 상대못하겠다는듯이 상급수사기관인 검찰청으로 직행했다.

그동안 훔친 돈으로 수억짜리 호화주택에, 귀금속을 주렁주렁 걸친 여자도 2~3명 둘여앉혀놓았으니, 이제는 도둑으로서의 「神話」어린 일대기에 막을 내리고, 비록 철창속에서라도 좀쉬고 싶었을는지도 모른다. 【金宗來기자】

日新製鋼 부산工場
資金달려 操業중단

【釜山】 부산北區鶴章洞72의5 일신제강 부산제조소(소장 김창근)가 13일부터 조업을 중단했다.

파이프 생산업체인 일신제강 부산제조소는 본사의자금부족으로 원자재 조달이 중단됨에따라 부자재및유류등을 확보못해 작업을 중단한것.

이회사 종업원 1백90명은 4월분 급료 3천2백만원을 받지못했는데 이날 정상출근해 사태추이를지켜보면서 생산작업대신 제품정리와 기계보수로 시간을 보내고있다. 【聯】

땅속에배달한 便紙
集配員등 징역1년

【堤川】 淸州지법 堤川지원 김승우판사는 13일 우편물을배달하지않고 땅속에묻은 丹陽郡梅浦우체국 전집배원 이개환피고인(22)과 땅에 묻힌 우편물을 신고받고 이를 불태운 전우체국장 김종하 피고인(44)에게 우편법및 직무유기죄를적용,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12월13일 배달중인 우편물 33통을 梅浦邑 下詩里 산비탈에 묻었고 김피고인은 이사실을발견 신고한 우편물을 불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돼 김피고인은 징역1년6월, 이피고인은 징역1년을 각각 구형받았었다. 【聯】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고위층 잘안다"詐欺

서울東部경찰서는 13일 고위층의친척을 잘안다고 속여 2백여만원을 가로챈 劉良玉씨(55·서울城東區聖水2街381)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李忠求씨(60·東大門區面牧5洞161의23)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우연히 알게된 손곤영씨(34·江東區城內洞4…)에게 고위층의친척을 잘안다고 속이고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2백여만원을 받아내 가로챘다는것이다.

음식점 바가지料金
관광철 다가오자

【抱川】 관광철을 맞아 경기抱川郡永北面 산정호수주변 상점및 음식점들이 관광객들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아 폭리를 보고있는가하면 무허 주차장까지 마련해놓고 주차비를 멋대로 받고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최근 국민관광지인 산정호수에는 주말이면 10~20만명씩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으나 주변 1백50여개소의 점포및 식당들은 유원지란명목하나만으로 바가지요금을받아내고 있다.

또 지난9일 가족과 함께 차를 몰고 이곳을 찾았던 朴모씨(28·東豆川市生淵2洞)는 『허가도 없는 주차장에서 소형차량은 5백원, 대형차량은 1천원씩의 주차비를 받아내고 있다』고 분개하고 『저녁6시부터 영업을 하도록돼있는 산정카바레는 대낮부터 음악을 틀어놓고 영업을해 아이들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밖에 음식점에서도 버섯백반 1인분에 3천원씩 받고있으며 내용물이 빈약한 매운탕은 1인분에 무려 5천원씩 받는가하면 자리세도 6천원씩을 받아내는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聯】

남편이 暴行하자 시어머니 내쫓아
부부를 拘束

【順天】 光州지검 順天지청은 13일 남편이 자신에게 폭행을 한다고 시어머니에게 보복을 한 黃花子씨(42·전남 求禮郡求禮邑鳳南里201)와 아내에게 폭행을 한 黃씨의 남편 金均林씨(41) 부부를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黃씨는 평소 남편 金씨로부터 행실이 나쁘다는 이유등으로 자주 폭행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4월1일 낮12시께 시어머니 鞠花葉씨(69)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집밖에 미리 대기시켜 놓은 택시에 옷가지등과 함께 鞠씨를 강제로 태워 내쫓았다는것.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남편金씨는 열흘뒤인 지난달 10일하오7시께 黃씨의 머리를 가위로 잘라버리는등 폭행을하자 黃씨가 남편金씨를 고소했는데 남편金씨도 黃씨를 존속폭행혐의로 맞고소했다는것이다. 【聯】

졸업앨범 촬영권 준다며
敎師들이 收賂말썽

【釜山】 부산시경은 13일 부산L중학교교사들이 졸업앨범사진촬영권을 둘러싸고 업자로부터 지난2년동안 3백여만원의 뇌물을받았다는 고발에따라 서무과직원 최모씨(35)와 鄭모씨(38)등 3명을 불러 조사중이다.

이같은 사실은 L중학앨범사진을 맡아왔던 사진업자 강모씨(39)가 경찰에 고발해 밝혀진것인데 강씨의 말에 따르면 지난 80년부터 이학교 졸업생들의 졸업앨범및 진학원서 사진대금을 수령할때마다 담당 직원들이 잘 봐준다는 명목으로 20~50여만원씩 받아냈으며 교직원들의 각종 모임과 행사때마다 5~10만원씩 요구하는 등 모두 3백여만원을 상납해왔다는 것이다. 【聯】

日新제강滯賃, 商銀서 지급
노동부 操業중단땐 休業手當

노동부는 13일 張玲子씨어음사취사건에 피해를보고 공매처분이 결정된 日新제강종업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위해 서울 梧柳洞과 仁川·釜山등 3개공장의 노임체불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임금을 우선 해결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조사결과 확인된 일신제강 종업원 2천2백여명의 5월분 월급3억5천여만원(지급일지난7일)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이 오는 17일까지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만일 일신제강이 조업을 중단할 경우 가동재개때까지 전종업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새로운 경영자에게현재의 종업원들을 모두 그대로 고용토록하는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회사를 공매하게될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共榮토건이나 그밖의 관련기업들은 법정관리등으로회사가정상가동되기때문에종업원들에게는아무 영향이 없다고덧붙였다.

◇못자리에 바쁜 일손

단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시면서 오랜 봄가뭄을 해갈시켰다. 못자리로 물꼬를트는 농부들의 일손이 바쁘다. 【13일 경기도 驪州郡 秀若面 釜谷里에서】

가뭄끝에 단비 & 解渴
嶺南은 더와야…오늘下午에 맑아

가뭄끝에 단비가 내려영남을 제외한전국이해갈됐다.

12일하오부터 내린비는 경기楊平 1백54㎜, 洪川1백14㎜, 麟蹄1백8㎜로 漢江유역에 특히 많이내렸다.

13일하오3시 현재 전국의 강우량을 보면▲春川89·3㎜▲東草84·9㎜▲瑞山72·9㎜▲水原72·3㎜▲大田63·3㎜▲서울61·4㎜▲江陵52·3㎜▲全州45·4㎜▲淸州43·3㎜▲群山39·5㎜▲忠武26·5㎜▲釜山27·1㎜▲木浦17·4㎜▲光州15·8㎜였다.

중앙기상대는 13일에도 비가계속내린뒤 14일상오부터 중부지방은 차차맑아지겠고 남부지방은 하오부터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警官행세 30代에令狀
教員신분증 用紙에 署長職印찍어

【光州】 光州경찰서는 13일 경찰관 행세를해온 金鍾錫씨(34·光州市北區中興洞718)를 공무원자격사칭및 공문서위조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12일 하오 3시께 승용차를 운전하다 光州市鶴洞 全南大부속병원앞길에서 차선위반으로 단속경찰관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나는 모기관 과장인데 부당하게단속했으니 시무실로 나오라』고 엄포,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인근파출소로 연행, 신분을 확인해본결과 가짜경찰관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는것.

金씨는 경찰에서 지난78년 務安H중학교 서무과에 근무할당시 교원신분증용지 1매를 훔쳐 木浦경찰서장 직인을 찍어 신분증을 만든뒤 가짜 경찰관행세를 해왔다고진술했다. 【聯】

一線민원상담실서 技術정보相談토록

한국전기통신 공사는 전국일선 전화국에 마련된 민원상담실에서 전화에 관한 각종 기술정보 상담도 해주기로 결정, 15일부터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기술정보상담은 최근 전자교환기와 특수선등 전화기가 등장함에 따른 조치인데 상담전화도 국번에 관계없이 0번으로 확대시켰다.

농민에 海外就業사기
1명구속 38명에 2천7백만원 받아

【光州】 전남도경수사과는 13일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외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2천7백만원을 가로챈 金相喆씨(27·서울江東區馬川洞298의9)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尹白鉉씨(33·서울江東區馬川1洞274)를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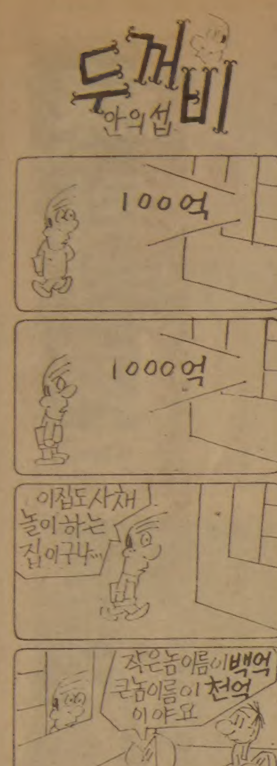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전남 長興을비롯 康津 昇州등 농촌지역을 다니면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사우디등 해외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출국에 필요한 경비명목으로 金萬錫씨(45·長興郡大德面分土里83)등 38명으로부터 1인당 60~80만원씩 모두2천7백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것. 【聯】

有色人種 정치참여
南阿共헌법위 건의

【케이프타운(南阿共)12日 UPI=聯】 南阿共和國의 대통령직속자문기관인 헌법위는 12일 소수백인의 권력독점을 지양, 유색인종과 아시아계인종도 의회및 내각에 참여시키라고 촉구하는 對政府건의문을 발표했다.

이건의안은 그러나 현국가적 상황으로볼때 선거에 1인1표제를 도입할수는 없다고 말하고 투표권이없는 2천만 흑인들이 중앙정부에 진출할수있는 가능성을 배제했다.

이건의안은 또 흑인들에게 별도의 자치생활구역을 설정하고있는 현재의 인종분리정책을 계속존속시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혼예물, 보석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요.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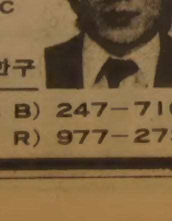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내고향통닭집
냉 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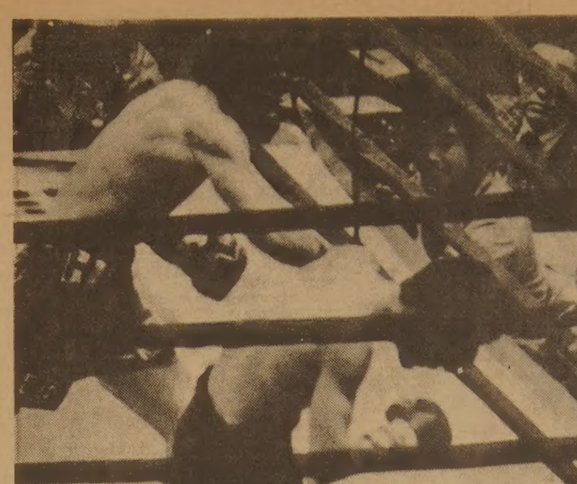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 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Maximode
○ 숙녀를 위한 수입품 불란서, 이태리 핸손 옷을 전시한 현대식 쇼우룸.
○ 가격이 저렴합니다.
★ OPEN : MON(월)~SAT(토)
9 a.m.~5 p.m (오전9시~오후5시)
147 Spadina Ave. #200(2층)
☎ : 596-1413



「죽음의 行進」멈출수 있다

끊이지않는 프로복싱 禁止논쟁

발라바死亡계기 긴급診斷 ③

복싱은 가치없는 스포츠일까。그 해답은 간단하지 않다。

캐나다 터론토대학의 앨런·허드슨 박사는 지난해 「복싱특별조사위원회」에 출두하여『권투는 뇌손상을 대가로 돈을버는 운동이며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했다。

피에르·르·블랑박사는 지난해 한 권투선수의 생명을 구하기위해 17일간 사투를 벌였다。몬트리얼서 클리블랜드·데니가 KO당한후 뇌부상으로 끝내 숨지자 블랑박사는『인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머리를 때리는 운동이 어떻게 스포츠인가』고 혹평했다。

프로권투의 메카로 알려져있는 뉴욕州서도 프로복싱이 최근 한때 금지된 적이 있었으며、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배출한 스웨덴은 15년째 복싱경기를 허용하지않고있다。노르웨이의회도 프로복싱의 영구금지를 결의했다。

80년 로스앤젤레스 에서 죠니·오웬이 사망하자 사회적인 문제로확대되어 프로복싱을 불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했다。상원에서 77-47로 부결됐지만 프로복싱 금지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英國도 美國의 사정과 비슷하다。

프로복싱을 금지시키자는 운동이 수포로돌아갔지만 『원시적 돈벌이』를 규제하기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뇌손상代價 돈벌이"혹평

정밀검사로 은퇴결정·영구禁止國도

과연 복싱은 사라질것인가、또 없어져야만되는 것인가。

복싱이 부상위험이 많은 운동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알고있는 사실이지만 위험하다고 해서 없어져야 한다는 논리는 단세포적인 사고 방식이다。

美國의 인기스포츠인 美式蹴球도 50년대 한때거센 금지 움직임이 있었다。한해에 수십명이 미식축구로 목숨을 잃자 금지법안이 상원에 상정되었다。

이번안은 통과되지 못했으나 이를계기로 미식축구는 구체적인 대비책을 세웠다。선수보호를 위한 장비 개선·경기규칙의개정및 벌칙강화를 통해 사고위험을 10분의1 정도로줄였다。

지난 8일 벨기에 자동차경주대회에서캐나다의질르·빌러너브선수가 경기중 충돌사고로목숨을잃었다。

국내 각종운동 경기에서도 목숨을 잃은사례가 많다。야구·럭비·미식축구·스키에서 사망자가 생겼다。스포츠에는 부상과 죽음의 그림자가 뒤따른다。

에베레스트 정복은 수많은 젊음의 희생끝에 가능했다。생명을 내걸고 미지의세계에 도전하는 정열은 그자체로 값진것이다。

프로복싱은 가진것이 없는 불우한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프로복서의주먹은 상품에지나지 않지만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어왔다。

保護와 興行은 2律背反

그러나 이때문에 귀중한 생명을 방치할수는 없다。몇몇 나라에서는 선수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를 하고 있다。

지난 46년부터 5년사이에 링에서 7명의 선수를 잃은 뉴욕州에서는 선수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36명의 링닥터를 임명했다。이들은 프로복서 지망생들에게 심장·폐·뇌·시력등을 정밀검사、프로복서로서의 적격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을 행사했다。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대회 5일전에 신체검사를 받고 경기직후에도 정밀검사를 받았다。링사이드에는 전문의사 2명이 반드시 입회하며 KO된 선수는 반드시 뇌과검사등을받아야한다。

뉴욕州 링닥터는 6連敗한 선수와 3게임에서 연속 다운된 복서들에 대한 은퇴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주심은 반년마다、부심은 매년 링닥터에

先進國 방법따라 對策세워야

게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KO나 TKO당한 선수는 30일이 지나야 다음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英國에서는 선수의 부상을 줄이기위해 한때 공기를 넣은 글러브가 등장하기도 했다。英國 챔피언이었던 에릭·분이 64년에 고안했으나 오래가지못했다。KO등 화끈한 맛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프로복싱은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선수 보호만을 생각하다보면 경기의박진감이 줄어들고 관중들의 KO욕구를 좇다보면 선수가 위험하다。

선수와 관중을 모두 만족시킬 묘안이 당장없다하더라도 복서에 대한 신체검사를 철저히하고 사후관리를 잘하면「죽음의行進」은 멈출수있다。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서 로드웍을 하는것은 피해야하며 소년들은 특히조심해야 한다。〈끝〉

【도움말=河權益박사 (경찰병원 정형외과과장)】

【金仁奎기자】

世界의 사회면

日에 의료사고 빈발 患者들 '병원恐怖'

虫齒예방에 극약써 어린이死亡

마취過用으로 植物人間 되기도

요즘 일본에선 의사의실수로 횡사하거나 식물인간이 되는등 의료사고가 빈발, 시민들이 병원 공포증에 떨고 있다. 충치예방을 위해 치과에간 어린이에게 독약을 잘못발라주어 죽기도하고,수술환자에게 마취약을 너무많이 주사하여 식물인간이된 사례도있다. 의료사고의 주요원인이 의사의 기초적인 미스에서 생기고있다는데 사회에주는 충격은 더욱 크다.

東京에서 약1백㎞ 떨어진 하찌오오지 (八王子)시에서 21일 치과의사인 다께나까(竹中·70세)박사가 충치예방을위해 찾아온 쥬리(樹里·3세)양에게 독약인 弗化水素酸을 弗化나트륨으로 잘못 알고 이에 발라 즉사케했다。

어머니와 같이 치과에간 쥬리양은 치과의사가 극약인 弗化水素酸을 처음 잇몸과 이에 발라줄때 『따갑다。아프다』고 울면서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그러나 다께나까(竹中) 의사는『참을성이 없는아이』라면서 어머니에게 쥬리양을 움직이지 못하게 꼭 껴안도록 지시하고 간호원으로 하여금 입을 강제로 벌리게하여 계속 독약을 발라댔다。

쥬리양의 잇몸은 부르트고 입속에서 흰연기같은기체가 뿜어 나왔지만 다께나까 의사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지 못하고 특이 체질로만 여겼다。

다께나까치과병원의 실수는 약품관리를 소홀히 한데 있었다。이병원의 약구입은 약제사였던 딸이 맡아왔으나 그딸이 금년봄 시집을 가자、약에관한 지식이 전혀없는 다께나까의사의 부인이 이일을 맡았다。

충치 예방약인 弗化나트륨이 떨어지자 부인은 지난 3월19일 약도매상에게 『弗素를 배달해 줄것』을 전화로 당부했다。주문을 받은 약제상은 弗化水素酸으로 간주하고 독약인 불화수소산을 배달했다。문제는 여기에 있었다。부인은 배달을받은 弗化水素酸을 弗化나트륨병에 따라부었다。의사는 아무 주저없이 이약을 환자에 쓴것이다。

25일에는 가고시마 (鹿兒島)대학부속병원에서 마취 미스로 환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학병원은 1년2개월된 어린이의 腸수술을위해 전신마취를하고 수술을 끝냈다。수술을 끝낸뒤 산소호흡을 시켰으나 혈압이떨어지고 맥박이 약해져 이상하여져 점검한결과 마취용파이프와 산소호흡용 파이프가 잘못바뀌 끼워져있음이 발견됐다。

지난3월19일 병원측은 산소호흡기에 끼워진 호스가 너무 부식되어 이를 의료판매업자에게 새것으로 바꿔끼우도록했다。그때업자가 실수로 마취용가스파이프에 산소호흡기를 연결했다。수술환자에게 산소호흡을 시킨다는것이 계속 마취가스를 들여마시게한 결과를 낳은것이다。

이밖에도 지방각지에서 마취전문의가 아닌 외과의가 어린이에게 마취약을적량의 5배를 주사하여 식물인간으로 만든 사례가밝혀지고있다。

일본 후생성은 이처럼 의사의 기초적인 실수에의한 환자의 횡액을 막기위해『모든 의료기구와 약을 직접 체크할것』을 강력히 권고하고있다。

【東京=宋孝彬특파원】

나의 이력서

金蘇東 ㊹

(題字 金蘇東)

전시하의 내사업은 순전히 조선전공의 돈으로 운영된 셈이다。그러나 결코 조국을 팔거나 친일적인행위라고 생각되지는 않았다。내가하는사업은 경제혼란을 더욱 가중시켜 일본의경제를 어렵게하는 일이며 일본인회사의 자금을 한푼이라도 더 우리사회에 풀어놓게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나는 그러한뜻에서더큰 일들을서슴없이 맡아했다。

조선전공진남포공장에 거대한 냉동기계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들어왔다。당시 한반도내에 큰 냉동시설이 있을리없다。나는 곧 친교가 깊었던 오오사까나고야의 기계상회에 전화로 문의했다。휴업중에 있는 큰 냉동시설이 도바 (伊勢)에 가까운 어한)에 있다는 것이다。조선전공에서는 즉시 살터이니 바로東京에 있는 소화전공본사로 가서 상의해 달라고 했다。

나는 곧 사원을 대동하고 東京으로 떠났다。시모노세끼역두에는 기차를 타려는 수백명의 승객들이 차표를 못사서 역전광장에 며칠씩 노숙하는 사태가 벌어지고있었다。전쟁으로 급박해진 일본의 실정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비누가 없어서 세탁을 못한다는 일본의 실정을 듣고 서울에서 세탁비누

東京출장

몇상자를 미리 준비했다。몇장의비누와 한상자의 비스키트를 휴대하고 역장을 만났다。사정이야 어찌되었든간에 그는 당시로서는 귀한 물건에 눈이 번쩍 띄인것 같다。나는 무난히 東京행 2등차표를 입수했다。전쟁중이라 작은물건도 뇌물로 통했다。

다이이찌호텔에 투숙했다。서울에서 갖고간 몇말의 쌀중에서 약간을 민가에 주고매일아침 주먹밥을 호텔식당으로 보내달라고부탁했다。그렇게고마와할수가 없었다。이 호텔에 투숙하고있는 사람들은 당시 일본이 주도해온 소위 대동아공영권의 수뇌들이었다。

말레이지아、인도네시아、버마、중국、필리핀외에 여러나라 친일파

納品할 大型冷凍機 國內엔없어 渡日

귀한비누·과자등 선사…손쉽게 뜻이뤄

◇新谷산업, 西鮮畵林의 사세는 日本에까지 뻗어나가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당시의필자㊨와 西鮮畵林 진남포책임자였던 영화배우韓霖。

인사들이 묵고있었다。아침에 식당으로내려갔다。전조야채라는 우거지 삶은것과 보리빵 한개、물을탄 포도주한잔이 아침메뉴의 전부다。우리들 테이블에는 하얀 주먹밥이 약속대로 배달됐다。식당손님들의 시선은 우리식탁으로 집중되었다。밥을먹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였다。다음날 식사때부터는 부득이 호텔방에서 휴대하고간 정어리 깡통을 따놓고 주먹밥을 먹었다。

한공기정도의 국수를 사먹기위해서 우동가게앞에는 수십명이 소독저를들고 줄을지어서있는 모습을볼수있었다。안경이나 손수건도 의료티키트가있어야 살수있고 설탕·과자 술은 만져보기도어려운 귀중품이었다。일본인들이 [illegible]난으로 허덕이던때다。그래선지 암거래가 성행했다。

오오모리、시부야등지의 요정에 가면 무슨 물건이든 살 수가 있었다。

대신 값이 무척 비쌌다。쇠고기、생선회、쌀밥등 암거래의 품목은 다양했다。철거된 냉동기계를 검수할 소화전공의 기사 하기하라 (萩原四郞·大阪출신의기계담당)를 오오모리 모 요정에 초대했을 때 그러한 일본의 뒷골목암거래에 나는 놀라움을 금치못했고 또 일본은 전쟁에서 반드시 패배하리라고 믿었다。하기하라를 대동하고 伊勢로 갔다。도바해안에 있는 냉동회사 창고에 산적된 파이프와 기계들의 검수를 완료하고 소화전공에 넘겨주는 인수인계서류에 날인했다。東京으로 돌아와서 대금 80만원을 받고 냉동회사에 60만원을 지불했다。도바여관에 투숙하는 동안에는 그들의 암거래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가쓰오 (魚堅)를 수십마리 사서는 한밤중에 창고에 숯불을 피워놓고 건조시켰다。일본사람들의 음식에 빼놓을수없는 조미료 가쓰오부시 (魚堅魚를 건조한것) 는 당시 돈으로도 살수없었고 암거래에도 없는 품목이다。이틀동안 주야로건조해서 훌륭한 가쓰오부시를 만들었다。東京에 갔을때 소화전공 중역들에게 선사했더니 입이 째지도록 좋아했다。일본사람도 구하기어려운것을 서울서온 당신이 어떻게 선사하느냐면서 놀라와 했다。빈틈없는 장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믿기어려운 돈벌이가 거짓말같이 진행되던 때다。그 냉동기계는 선박편으로 진남포에 수송될 계획이었으나 끝내 선적도 하지못한채 일본은 패망했다。

流星의 賦

고독한 英雄 ㊲

<382>

李炳注 作 李友範 畵

신불의 말엔 미상불 진실이있다。

역적으로 몰리는 것은 주로 충신들의 입에 달려 있었다。홍계남의 입장도 그런점 안전한 것이 못되었다。경기감사를 비롯한 관군의 우두머리들은 계남을 높이 평가하기는 커녕 질시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언젠가 계남의 전과가 정당하게 평가되면 상대적으로 그들의 무위무능이 폭로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홍계남도 자기의 주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모략을 의식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난을 당했는데 그런데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그러나 마음이 심란한 것도 사실이었고 고독하고 쓸쓸한 것도 사실이었다。그런만큼 신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터다。

『내 어이 신공의 마음을 모르겠소。공적으로 말하면 신공은 병사 (兵使) 쯤의 직책을 가져야 할 것이오。그런데 일고의 돌봄도 없으니 그 마음 오죽이나 분격하겠소。하지만 신공 들어보오。홍수가 범람하여 집을 떠내려가게 하고 농토를 망치는 재해가 있지 않소。그렇다고 해서 홍수를 거역하고 홍수를 욕한들 소용 없는 일이 아니겠소。때론 구름이 해를 가리지만 원래 태양의 빛은 찬란한 것이오。마찬가지로 때론 사리 (事理) 에 어긋나는 일이 판을 치겠지만 소연 (昭然) 해야 할 것은 오륜 (五倫) 이 아니겠는가。백천의 이유가 있더라도 때문에、반란은 꿇지 않은 것이오。불가한 것이오。어리석어도 왕은 왕이오。그것이 우리의 으뜸이오。그 으뜸을 모신다는 것이 윤 (倫) 의 시작이오。하늘의 태양이 때론 차고、때론 덥고、때론 흐릴 경우가 있어도 어찌 태양을 무시하고 우주의 일을 경영할 수 있으리오。신공、일시적으로 억울하다고 해서 대본 (大本) 을 망각하는 언동이 있어선 안되겠소』

신불은 그렇게 말하는 계남을 보고 빙그레 웃었다。

신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계남의 말에만은 순응한다。

『부장님의 말씀이니 들어모시겠읍니다。누구보다도 부장님의 심정은 제가 알것 같아서요』

하고 신불이

『달이 이처럼 좋은 밤에 술이 없는것이 한스럽습니다』

했다。

『신공이 좋은 말을 했다』

며 작전회의는 잠시 미루고 홍계남이 술자리를 베풀라고 일렀다。동시에 초계병을 증가하라고 이르고

『오늘밤의 초계병은 내일 오전 실컷 자도록 미리 일러 둬라』

하는 지시도 내렸다。

광교산 숲사이로 월색은 청명한데 조촐한 잔치가 베풀어졌으니 실로 전진 (戰陣) 의 풍류이며 풍류속의전진이었다。권에따라 계남이 낭창 (朗唱) 했다。

『참담용사일투쟁 (慘澹龍蛇日鬪爭)
간과직욕진생령 (干戈直欲盡生靈)
고원수출산하개 (高原水出山河改)
전지풍래초목성 (戰地風來草木腥)
정위유원전한해 (精衛有寃塡瀚海)
포서무루곡진정 (包胥無淚哭秦庭)
병주호걸지수재 (幷州豪傑知誰在)
막의분군하정경 (莫擬分軍下井陘)』

낭송의 소리 처량도 했는데 이것은 금 (金) 나라 원호문 (元好問) 의 시。공교롭게도 몽고와 금나라 사이에 있었던 임진역 (壬辰役=1232) 의 사연이다。

中學체조선수 증발

合訓귀가후 家出…80일째

【淸州】오는19일부터 열리는 제11회 전국소년체전에출전키로된 중학교체조선수가 가출80일째 소식이 없어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있다。

忠北淸原郡內秀中 체조선수 成榮勳군 (15·3년) 은학교 기숙사에서 합숙훈련중지난1월25일 구정을 쉬기위해 淸原郡錦城面江佳里 안산부락에있는 집에갔으며 37일만인 2월22일 가출 소식이없다는것。

榮勳군은 成仁模씨(49)의 막내로 淸原郡 旺美국교4학년때부터 체조를 시작、제7회와 제8회 전국소년체전에서 旺美국교가 연이어 우승을 따내는데 주역을 맡은유망주로 졸업과 함께 內秀中에서 스카우트、합숙훈련중이었다。

內秀中 崔純夏교장과 체육담당 延周熙교사는『榮勳군이 1월29일이후 줄곧 결석을 하여 榮勳군집까지 여러차례 찾아갔으나 만날수없었는데 지난2월21일 밤에야 가족들로부터 가출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榮勳군은 1m50㎝의 키에 얼굴이 둥글고 눈이 큰 미남형으로 성격은 내성적이다。【聯】

極東사격聯盟 창설

韓國등 아시아6國

【마닐라12日UPI=聯】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6개국은 극동사격연맹을 창설하고 내년2월 마닐라에서 10종목에걸쳐 제1회 사격대회를 개최하기로했다。

창설회원국중 마카오와 中共이 불참하고 日本 홍콩 필리핀대표들이 참석한가운데 이날열린 창립총회에서는 필리핀사격협회장 파비안베르장군이 연맹회장에 선출되었다。

연맹규정에 따르면 사격대회는 2년마다 각회원국이를 돌아가며 주최하게된다。

李德姬、웨이드눌러

【루가노 (스위스) 12日AP=聯】한국의 李德姬는 이곳서 벌어진 스위스오픈여자테니스대회 2회전서 英國의 버지니아 웨이드와 타이브레이크 접전끝에 2-0(6-1、7-6)으로 승리했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한국일보
533·2361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10>

朴婉緖 作 金光培 畵

明暗 ㊹

『볼수 있게 됐단 소리 좀 안할수 없어? 사람이 식었단 소리같이 들려서 섬어』

『그렇지도 모르지。사랑은 맹목이란 소리가맞는다면』

수지가 솔직하게 말했다。인재 역시 불길한 예감을 피하기만 해선 안될것같았다。

『그 동안 너에게 일어난 변화를 솔직하게 얘기해줄 수 있겠어? 나도 그걸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선을 본 건 사실이야。그렇다고 아직 그 쪽을 택한건 아냐。그동안 자기도 안만났지만 그 쪽도 자주 만나진 않았어。난 자기도 그쪽도 좋다 적당한 거리로 떼어놓고 냉정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었을 뿐이야。자기한곤 너무 친해서 맹목이었고 그쪽은 너무 역성 드는 사람이 많아서 바로 볼수가 없었으니까』

『역성 드는 사람이 많다니?』

『신경 쓸거없어。중매란다 그런거야。그런 신랑 흔지않다고 너도나도 한마디씩 거드니까。하긴 조건으로 따지자면 온세상이 다그쪽편이지 자기편은 사람없어』

『그러니까 넌 두개의 혼처를놓고 저울질을 했다。이거지?』

『왜 그게뭐가 잘못됐어? 어차피 두개 이상있는 것중에서 하나를 골라잡아야할때, 비교는 불가피한거 아냐?』

『어떻게그럴수가…。몇년동안을 한결같이 사랑한애인과 엊그저께 중매로만난 놈팽이를 어떻게 한저울에 달수가…』

인재의 개탄을 수지가딱한듯 비웃었다。

『사랑을 했으니까 같은 자격으로 저울질이라도 당하는 거야。그렇지않았으면 어림도 없었을걸。그만큼 그 쪽은 누가 보기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걸 알아야해』

『넌 왜 아까부터 네 자신은 쏙 빠지고 세상사람들을 이 일에 끌어들이니。결혼은 개인적인 일이야。우리 둘이 좋으면 되는거야』

『연애라면 모를까 결혼은 그렇지도 않아。객관적인 평가를 무시하고 행복한 결혼 그다 없어。객관적인 평가란 뭐겠어? 세상사람들 공통의 안목같은 거 아닐까?』

수지가 약 올리듯이 흥분하지않고 조목조목 늘어놨다。

『이렇게 끝장 날줄 왜 몰랐을까?』

인재가 일루의 희망마저 포기하고 비통하게 중얼거렸다。너무 처참하게 짓밟혔다는 생각이 되레 그를 침착하게했다。

『그럼 자기는 우리가 이걸로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수지의 유리알처럼 말똥말똥 한눈에 비로소 감정이그렁그렁해 지면서 중얼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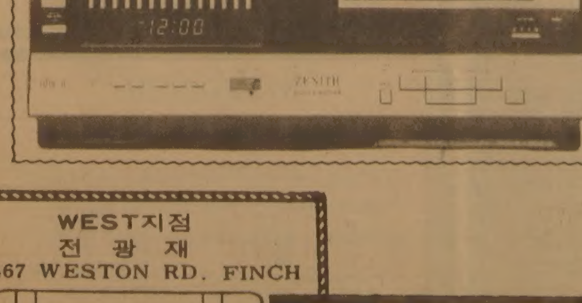
『끝나지않았음 네 발밑에 엎드려 애걸이라도 하랴』

『비꼬지말아。자긴 내가 그동안 얼마나 괴로와했나 한번쯤 헤아려보려고도 안했어。생각해봐、자긴 나 만나고나서 불과 한시간도 안되는사이에 우리 사이에 있었던걸 후딱 청산해버렸어。것도 모르고 난 여지껏 허구한날 피가마르게 괴로와했단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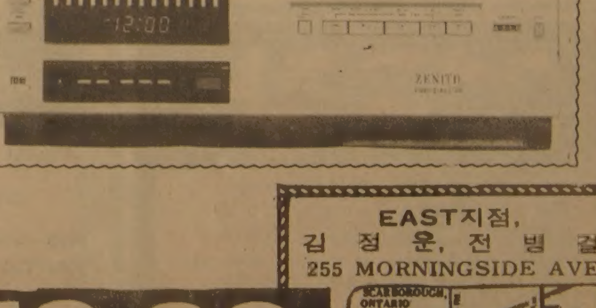
이제 그녀의 눈에 그렁이는 건 감정뿐아니라 눈물이었다。그녀는 좀전까지도 놓쳐버려도 아까울거없다고 한껏 늦추었던걸 새삼스럽게 끌어당기고 있었다。그녀 자신도 예기치못한 변덕이었다。

앙콜세일

< ZENITH 비데오 >



교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제니스·비데오 세일을 연장해서 다시한번 여러분께 세일 가격으로 봉사하게 되었읍니다.



연장기간 : 3주간

WEST지점
전광재
3467 WESTON RD. FINCH
FINCH AVE W.
HWY 401
745-5555

아카데미 T.V.&STEREO CO.

EAST지점,
김정운, 전병걸
255 MORNINGSIDE AVE.
SCARBOROUGH, ONTARIO
282-2820

한국인의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SHERBOURN써브웨이옆
☎ : 923－9948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신축 복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체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식 품 점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오전 11시~6시30분 전화 : 530－1870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화 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운전학교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광고문의 533－2361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분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황 순 일)
전화 : 481－3443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장 의 사

장 의 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 인 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다년간의 경험으로 성심 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전화 : 746－6962 (Mr. Lee) 페인트·월페이퍼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회자)
전화 : 960－0074

Y어린이학교 (김창열)
전화 : 536－1166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매,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New York, U. S. A.)
전화 : 1－212－762－4694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전 C. A. 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한국일보 안내광고＊

아세아 한약방
복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 한국일보 · Toronto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매·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762-2700

구 인

학생구함
피아노 레슨. Theory
경력 : A.R.C.T. U Of T B.M. Performance
전화 : 531-4579 신 수명(오후 5시이후 연락바람)

유경험자 토요일,일요일 Variety Store Helper 구함.
영 / 에그린톤 부근.(낮12부터 밤10까지)
전화: 481-2172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경험있는 여자자켓 만드실 Full Time 재봉사 구함
(주급 : $220부터~)
전화 : 368-2819 (Mr. Wong)

Full Time 캐쉬어 구함.
(웨스톤 × 휜치) 전화: 741-1465

남•녀 관계없이 Milk Store에서
일하실 Helper구함
전화 : 691-3666

입주하셔서 집안일 도와주시고 노인네(여자분) 시중들어 주실분 구함.
전화: 742-8537(5시이후 연락바람.) Mrs. Kim

경험있는 여자 캐셔 구함.(Good Wage)
(스카알렛×이그린톤: 서부지역) 전화: 767-0762

Part Time으로 가게에서 막일 하실분 구함.
전화: 622-8516

Full Time or Part Time 캐셔구함.
동부지역 전화: 422-3121

꽃집에서 일하실 남자 Helper 구함.
다운타운 지역.
전화: 485-9419

Full Time 스토아 헬퍼구함.
리치몬드•힐 지역(Yonge×Hwy 7)
전화: 884-5433

Variety & Grocery Store
매니져 구함.(다운타운 지역)
전화: 368-8138 (오후6시 이후에 연락 바람)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구 혼

결혼상담실 (한국기원 내) 상담자 : 최규찬 김운서
653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3-0168 매일오후 1시~10시

매매및 양도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전화 364-0984 REMA FURNITURE

Hunt's Bakery
Jane-Finch Shopping Mall안에
3개월된 새 Store 임.
건강관계로 급매 코져함. 전망좋은 Mall임.
가격: $148,500 다운페이: $45,000
잔액은 Business Loan 가능함.
3주간 Hunt's 본사 School 에서 traing받음.
전화: 635-0187 Mr. Kim

공장지대 Office Building 안에 있는 경쟁없는 Donuts Shop. 도너스 만드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음.
주매 상: $3,500~$4,000
Open: 오전 6:00~오후 6:00
아스킹: $150,000
연락처: 665-0790 Mrs. Lee

Recreation Farm On Trent — Severn System.
상업성 전망이 밝은 약 30 에이커를 포함한 200 에이커 정도의 레크레이션 농장 팝니다.
많은 수목이 우거졌으며 토론토까지 1시간 거리로서 낚시와 사냥을 할 수있는 좋은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흥미있으신 분은 한국일보의 Miss. 박에게 문의 바랍니다.

성능좋고 속도빠른 사진 식자기
(SAKEN SPICA — 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Mr. Donuts Franchise
Yonge Street North Thornhill
1500 Sq. Feet
Seats 30, Open 24 hours
Excellent Lease. Call Mr. Pridham 883-3095
The Gormley Group Real Estate

BUSINESS BARGAINS
드라이 크리닝 장비 싸게 팝니다.
4 Drycleaning Plants asking $29,000, $49,000, $69,000, $159,000

2 Variety Stores asking $26,900, $45,000

2 Donuts Shops askig $129,000, $169,000

Call Nick Marali
Selective Realty, Realtor
Days : 751-6850
Evenings: 439-7796

큰 규모의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2,400 sq. ft. 주매상 : $7,500
아스킹 : 7만불+스탁
전화 : 769-9704(5시이후)

80년형 Pontiac Parrisienne Safari Wagon.
거의모든 Option 들어있음 55,000Km. $6,900
전화 : 439-4620

Becker Milk Store Franchise
3731 Lawrence Ave. E.
꼭히 관심 있으신분 내방바람. 전화: 431-3921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 월-토 (9:00a.m-9:00p.m) 꼭히 관심있는분의 연락바람. 전화 :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MITA COPIER 500D (Very Good Codition)
사무실용으로 적합.
전화 : 533-2364 Mrs. 김

꽃가게 급매
전화 : 624-7597

Yonge St. 에 있는 꽃가게 급매
위치: 리치몬드•힐 지역
넓이: 4000 Sq. F.
주인이 이주관계로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져 함.
꼭히 관심있으신분 영어로 문의바람.
전화: 773-5530 Mr. Grabner.

토론토에서 가까운 지역의 Motels.
▲19 Unites: $ 93,000 Gross. ▲29 Unites: $101,000 Gross
▲15 Unites: $ 66,000 Gross. ▲16 Unites: $ 72,000 Gross
▲16 Unites+ $110,000 Gross. ▲30 Unites: $200,000 Gross
Call: Andrew 665-6778, 537-4156
Yanka Realty Inc.

식당과(Snack)아이스크림 & 그로서리를 겸한 가게 급매
499 David Dr. (New Market. Ont.)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50mm 스피커 달린
Sound-Projector
전화 : 368-2819 Mr. 왕

코너에 있는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 상: $5,000. 아스킹: $49,000(No Agents)
73 Coxwell Ave. (4시 이후 방문 바람)

Variety & Grocery Store 매매
주매 상: $4,000이상. Rent: $500
전화: 463-4181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 $3,000
4 비데오 머신. 라이센스와 로타리오 (로렌스×브림리)
전화 : 261-4469(Joe) 오전7시30분~오후6시 사이에 연락바람.

2베드•룸 딸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가정사정으로 급매.
리스 : 4년. 옵션 : 5년. 렌트 : $550.
전화 : 266-4866 (월~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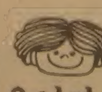
Kingston Rd. 와 Victoria Park Corner에
위치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전화 : 698-0844 언제든지 연락요망

하우스 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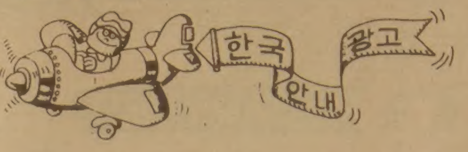
클링톤하우스 · 693 Bloor St. W.
일.주.월. 일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Rent하 십쇼.
Christie Subway에서 100m거리 아리랑식당앞.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시설완비된 Semi Detached, 3 Bed Room
Rent: $650/mon. (케네디 & 엘스미어지역)
전화: 225-1204

3개의 방이있는 사무실 렌트 합니다.
(Professional Suit) 회계 또는 변호사사무실로 적합.
815 Bloor St. W. 2nd Fl.로 직접 내방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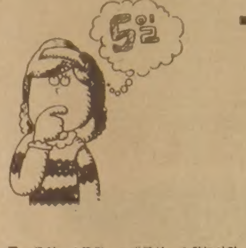
이사  하셨읍니까?
● 주소변경을
잊지 마십시오.
독자번호와 새주소를
곧 알려주세요.
한국일보 독자부
☎ : 533-2361

한국안내광고는…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경우에 필요하며,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경제적일까요?
보다 높은 광고효과로 밝은 내일을 설계하십시오.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읍니다.
... 모습을 한눈에 보실수 있는 한국안내광고는 ... 있읍니다.



■ ●매매 및 양도 ●부동산매매 ●사업체매매 ●자동차매매 ●하우스렌트 ●사무실·점포렌트

■ ●구인 ●구직 ●재봉사 ●찾는사람 ●구혼 ●여권분실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전화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ANNIE'S BEAUTY CARE CENTER
Skin Care. Ear Piercing. Fashion Make up.
각종 미용상담에 관해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6093 Yonge St.(영 × 휜치)
전화 : 223-7884 Mrs. Lee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 역 및 통 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활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촬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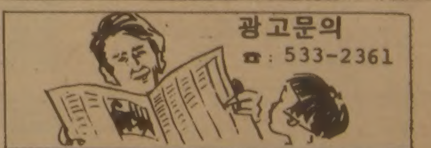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광고문의
☎ : 533-2361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 한국일보 안내광고 ***

2ND CLASS MAIL NO. 5248